위대한 인민은 말한다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위대한 인민은 말한다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책을 내면서

10년이라는 력사의 한 년대가 흘렀다.

저 멀리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장엄한 진군의 포성이 울려퍼지는 오늘에 이르는 이 위대한 려정의 참전자, 체험자인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10년이 세기보다 길다고 할만큼 우리 인민은 참으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멀리도 오고 높이도 올라섰다.

자기들자신도 믿기 어려운 거창한 기적들과 변혁들이 새겨져있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되새겨보며 누구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격정을 금할수 없어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위대한 인민이라는 가장 값높은 부름을 가슴에 새겨안고 이 땅의 천만인민은 전대미문의 도전과 시련의 험산준령을 넘고넘어 격동의 시대를 열어놓는 동서고금에 전무후무한 사변을 안아온것이다.

위대한 인민!

참으로 무한대한 믿음의 세계, 거대한 믿음의 무게가 깃들어있는 최상최대의 부름이다.

몇해전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울려퍼진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음성이 지금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되여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결사적으로 옹위하고 성심으로 받들어주며 당의 구상과 로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력사의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의 영광넘친 75년사에 대하여 한순간인들 생각할수 있겠는가고, 당에서 대고조를 호소하면 천리마를 타고 호응했고 대건설을 작전하면 속도전으로 화답했으며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없이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 위대한 인민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우리 당은 언제나 든든하였고 어떤 곡경속에서도 이 땅에 기적의 년륜을 새겨올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절세위인의 이렇듯 가슴벅찬 믿음을 새겨안고 우리 인민은 지나온 10년세월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시련과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며 자력자강을 생명으로, 생존방식으로 체질화한 영웅적인민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일편단심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는 충직하고 훌륭한 인민, 바로 여기에 위대한 인민의 참모습이 있다.

충성심의 높이이자 위대한 인민의 높이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과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하며 시련의 고비들을 헤쳐오면서 우리 인민은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며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심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며 그이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고 승리이라는 철리를 새겨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대업도 실현해나갈수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은 우리 인민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에도 용약 떨쳐일어나고 최악의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기적과 변혁으로 강국의 미래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한 불굴의 힘의 근본원천이였다.

세상천지가 어떻게 변해도 오직 한마음,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이 그렇듯 순결하고 열렬하며 무한하기에 위대한 인민이라고 누구나 떳떳하게 웨칠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절세위인에 대한 충성으로 불타는 천만의 심장들이야말로 조선의 제일 큰 재부이고 필승불패의 원천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진리이다.

지나온 10년세월은 위대한 인민에게 있어서 희세의 강자의 손길아래 천금주고도 바꿀수 없는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억척으로 지켜내며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불

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온 자존과 번영의 자랑찬 행로였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다.

최근년간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을 찬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은 말그대로 사상초유의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여기에 해를 이어 자연재해가 들이닥치여 우리 인민은 시련이라는 모든 시련, 아픔이라는 모든 아픔을 날날이 겪어야 했다. 그야말로 지금껏 인류가 겪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재난과 시련들이 통채로 압축되여 이 땅에 들씌워졌다.

남들 같으면 10년은 고사하고 단 열흘도 견디여내지 못하였을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조선은 어떻게 솟구쳐올랐던가.

압박과 시련이 가중될수록, 광풍이 더 모질게 불어칠수록 우리 인민의 민족자존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 자력자강의 힘은 더욱 백배해지고 불가항력적인것으로 되였다.

거대한 인력을 물리치고 운반로케트가 솟구쳐오르듯 무서운 돌진력으로 우리 인민은 내세운 목표들과 눈부신 리상을 실현하였고 단순히 생존의 출로를 찾은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기의 힘을 다지고다져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였다.

한세기전까지만도 힘의 수난자였던 조선의 지위가 급상승하

고 강국의 위용을 떨쳐가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긍지는 하늘에 닿았다.

이 극적인 변화가 우리의 힘과 지혜, 정신력과 함께 우리식의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개척하고 이룩한 자랑찬 승리라는데 그 거대한 의의가 있다.

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세계를 따라갈것이 아니라 도약하여 앞서나가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불타는 자존심, 창조의 신조를 실천해가는 천만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활화산마냥 분출되는 속에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속도, 려명신화와 같은 비약의 속도가 창조되고 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기적과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거창한 변혁과 더불어 사람들이 달라지고 창조력이 비상히 높아진것이야말로 억만금에도 비할수 없는 가장 귀중한 발전이고 제일 큰 재부의 축적이며 미래를 개척하는 강력한 힘의 담보가 아닐수 없다.

사랑으로 열렬하고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빛내여가는 아름다운 인민의 모습에 위대한 인민의 진미가 력력히 어려있다.

우리 인민모두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한점 그늘없이 복받은 삶을 누려오면서 사회주의가 없으면 나자신도, 자기 가정의 행복과 아들딸들의 밝은 미래가 없다는것, 사회

주의야말로 생명이고 행복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이는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애국의 지향이고 강렬한 민심인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민족의 영원한 애국의 넋으로 새겨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우리 인민이다.

주체철의 붉은 쇠물폭포를 장쾌하게 쏟아내는 철의 기지 용해공들의 구리빛얼굴에도, 드넓은 전야마다 진한 구슬땀을 뿌려가는 농업근로자들의 드바쁜 걸음새에도 그리고 어려운 탐구의 길을 꿋꿋이 가고가는 애국과학자의 보풀진 실험일지에도, 외진 섬분교의 크지 않은 교단에 백옥같은 량심을 묻는 성실한 교육자의 마음속에도 애국의 넋과 열기가 력력히 어려있다.

덕과 정으로 화목을 도모해가는 인민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구의 도처에서 극단한 개인리기주의, 인간증오사상, 황금만능주의, 패륜패덕이 휩쓸고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하고 우리 식의 우월한 도덕과 생활양식을 살려 온 사회에 사회주의향기가 차넘치도록 하는것이 화목한 대가정의 가풍으로, 국풍으로

공고해지고있다.

정녕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10년세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니지 못한, 아니 지닐수도 없는 위대한 인민이라는 값높은 부름과 함께 천만인민의 존엄과 지위는 비상히 승화되였고 그 위용과 힘은 천백배로 강해졌다.

이 력사의 엄연한 현실을 되새기며 우리 인민이 다시금 절감한 철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인민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무궁할 래일이 있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정녕 우리 인민을 품어주고 키워주고 이끌어주시여 영광스러운 새시대의 주인들로 당당하게 내세워주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이시고 스승이시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10년세월을 하루같이 오로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오시였다.

지금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한마음 우러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위

하여 헌신분투해야 한다시던 절세위인의 절절한 그 고백을 우리 인민은 잊지 않고있다.

그이의 심장속에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오직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좋은 우리 인민밖에 없으시였다. 이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어 온 세계가 부러워하게 내세워줄것인가 하는 하나의 열망으로 온넋을 태우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분이기에 겹쌓이는 시련의 언덕을 웃으며 넘으시였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깡그리 기울이시며 오로지 인민을 위한 길에서 가장 큰 희열과 락을 찾으시는것 아니겠는가.

저 하늘의 태양보다 더 강하고 은혜로운 손길로 인민을 민족자존, 자력부강의 제일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고 민족사적대업의 성취로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중의 업적으로 된다.

그이의 품속에서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성장한 우리 인민이기에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물러앉고도 남았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도 꿋꿋이 이겨내며 세기적인 기적들을 무수히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위대한 인민이 지니고 구현해야 할 창조의 리상과 목표,

창조의 방식과 속도를 명백히 밝혀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이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전 인민적인 창조대전의 열풍을 일으키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었다.

세상만물을 품어안는 태양의 열과 정으로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위민헌신의 빛나는 귀감으로 온 나라에 덕과 정이 넘치게 하여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시련도 대적도 다 이겨내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확신하며 진군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있다.

정녕 절세의 위인의 슬하에서 우리 인민은 자주정신의 체현자, 자력갱생의 강자, 참다운 애국자, 화목한 대가정의 주인들로 몰라보게 성장하였고 오늘 이렇게 위대한 인민으로서의 더없는 존엄과 긍지를 만방에 떨쳐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이 땅의 천만인민은 심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 이렇게 소리높이 말한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인민은 위대하다!

지나온 10년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위대한 인민의 값높은 부름을 영원히 빛내여나갈것이다.

절세위인과 함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한 년대를 민족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온 천만인민의 참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지만 도서가 해내외독자들에게 공화국의 인민들이 무엇으로 그토록 위대하고 훌륭하며 아름다운것인가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는데 다소나마 이바지되기를 바라는바이다.

차 례

1. 인민은 일편단심 령도자만을 믿고 따른다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15

아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 …………………………………23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34

한없는 그리움속에 사는 인민 ……………………………46

원수님을 위하여 무조건, 끝까지! ………………………60

빛나는 영생은 인민의 불타는 마음에 ……………………75

2. 강용한 인민의 정신력과 기상은 백배해졌다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 ………………………93

자력자강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나 ………109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다 ……………………124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137

3. 눈부신 창조로 영웅적인민의 위용을 떨쳐간다

거창한 창조대전의 열풍과 더불어 ······················· 153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 168
새 문명의 참다운 창조자로 자라나다 ··················· 182

4.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 우리 집을 빛내여간다

사회주의 우리는 너를 사랑해 ·························· 199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으로 새겨안고 ·················210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여 ······················220
늘어나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대오 ······················234
사회주의사회의 본태와 대풍모 ··························244
덕과 정으로 화목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인민 ···256

1. 인민은 일편단심 령도자만을 믿고 따른다

《우리 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김 정 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인간의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사랑, 깨끗한 량심과 고상한 도덕, 가장 보람차고 긍지높은 인생의 진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깨끗하고 진실한 충성심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충성의 한마음을 간직한 인민이야말로 이 세상 제일 아름답고 강하다고 하는것이다.

충성심, 바로 이 세 글자속에 위대한 우리 인민의 고결하고도 아름다운 풍모가 집약되여있다.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심장의 붉은 피를 끓여주는 쇠물처럼 뜨겁고 거목의 뿌리처럼 굳건하며 백옥처럼 깨끗한 충성심은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삶의 근본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충직하게 모시고 위대한 인민의 성스러운 력사를 아로새겨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새시대에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만을 변함없이 이어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다

함없는 숭배심, 열렬한 충성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피눈물의 바다에서 분연히 일떠서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력사의 숫눈길에 용약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열화와 같은 충심의 세계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여지는것같은 대국상속에서 그이와 인민은 어떻게 하나로 되였던가.

그것은 정녕 가장 절통한 비애의 바다에서 이루어진 가장 격렬한 포옹이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19일 12시.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셨다는 천만뜻밖의 비보는 정말이지 온 민족의 심장을 들이친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었다.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현실앞에서 비애의 피눈물을 쏟아내던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과연 무엇이 굳건히 자리잡게 되였던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였다.

운명의 기둥은 하늘이 세워주는것이 아니다.

무엇으로써도 지울수 없는 인민의 체험,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는 력사의 진실,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절대적

인 믿음이 세워주는것이다. 그 믿음만이 력사가 일찌기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심일체의 위대한 화폭을 낳을수 있었다.

너무도 뜻밖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보낸 애도의 날과 날들에 우리 인민은 보통의 10년, 100년이 줄수 없었던 운명의 철학을 깨달았고 거창한 한 시대를 거친것과 같은 가장 신성한 체험, 가장 운명적인 체험을 하였다.

영원히 떨어질수 없는 품이라고 여기였던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통함과 슬픔으로 얼어들던 인민의 마음속에서 불덩이같은 오열이 터져나왔다. 태양의 뜨거움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의 사랑을 너무도 꿈만 같이 받아안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2월의 강추위속에서 위대한 어버이를 그리며 추모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이런 훌륭한 인민을 키우시였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호상을 서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보장대책, 더운물보장대책을 철저히 따라세우고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이의 따뜻한 가르치심에 접한 사람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달리던 렬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눈보라속에

서 홑옷채로 열밤, 백밤을 지새운들 가슴에 응어리진 슬픔을 가실길 없는데 인민들의 손발이 찰세라, 귀가 시릴세라 그토록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의 사랑이 뜨겁게 어린 은정깃든 발열붙임띠를 쓸어보며, 발밑에 고여지는 불돌우에서 호상을 서면서 그리고 더운 김이 문문 나는 사탕물을 받아안으며 사람들은 사려깊은 어버이의 정에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인민은 눈보라 몰아치는 12월의 피눈물바다에서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곡히 교시하신것처럼 **김정은**, 그이이시야말로 인민의 아들이시고 수령님의 인민, 장군님의 인민모두를 지구가 깨여진대도 끝까지 껴안고 책임지실 위대한 인간이시라는 철석의 믿음을.

하기에 천만인민은 그 어떤 주저도 없이, 그 어떤 격식도 없이, 그 어떤 떠밂도 없이 저도 모르게, 어쩔 사이없이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껴안는 불같은 사랑도,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강인한 의지도,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는 불굴의 기상도, 천만대적을 눈아래로 굽어보는 배심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호상을 서시며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시던 모습, 령구차에 손을 얹으시고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시며 영결식장의 숫눈

길을 걸으시던 그 모습에서 인민을 책임지고 수령의 영생을 빛내이는데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신념의 기둥을 보았다.

한순간의 주춤도 없이 대국난을 장악하고 정확히 평정해나가시면서 후손만대에 영원할 영생위업을 실현하시였으며 무한한 인덕과 포옹력으로 인민의 슬픔을 가셔내고 국제정세를 한손에 틀어쥐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가시는 비범한 정치실력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수령님을 어버이로 부르던 그때처럼,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부르던 그 목소리로 인민은 **김정은** 그이를 우러러 우리의 운명, 우리의 태양이라고 목놓아불렀다.

절세위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숭배심으로 가슴 불태운 우리 인민이였기에 2011년 12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는 력사적사변과 더불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아침을 맞이하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게 신심드높이 새로운 진군의 함성을 높이 울리였다.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를 끝까지 따를 한마음을 가다듬으며 용기백배 떨쳐나선 인민의 활화산같은 열기에 세계는 경탄과 놀라움으로 들끓었고 적대세력들은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뜻깊은 2012년.

눈보라 세찼던 이해의 첫아침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시찰을 단행하시였다.

호방하게 옮기시는 걸음새며 인자하신 웃음, 일군들앞에서 하시는 손짓,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시는 답례까지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그날의 원수님을 뵈오면서 우리 인민의 심장에 새겨진 가장 큰 충격은 전사들의 팔을 끼신 그이의 모습이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진감하는 기념촬영장에서 지휘관들의 손을 잡고 팔과 팔을 힘있게 끼시고 어깨를 굳게 겯고 서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이 불멸의 군상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실 그이의 신념,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고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그이의 불같은 선언이였으며 령도자와 일심일체가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장엄한 진군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짚은 위대한 인민의 필승의 기상이였다.

그 깊고깊은 뜻을 인민들은 천만근의 무게로 새겨안았다.

사상과 뜻에서 령도자와 한치의 간격도 없는 가장 순결한 충신의 모습도, 령도자의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서 손발이 되고 기수가 되는 충신의 불같은 헌신도 다름아닌 여기

에 있다는것을.

피로써 승리해갈 투쟁의 길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심장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더 힘있게, 더 뜨겁게 팔을 끼고 어깨겯고 나섰다.

온 나라가 활화산처럼 끓어번졌다.

그가 기대를 돌리든 포전을 가꾸든 깊은 산과 땅속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을 하든 누구나가 화선에 선 심정으로 자기 맡은 일을 완전무결하게 해제낄 결의로 충만되였다.

조국방선에 철벽의 진을 치고 적들이 움씰하면 단숨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멸적의 기상에 넘쳐있는 병사들, 석탄이 쾅쾅 나왔더라면 장군님께서 그렇게 되시였겠는가고 울분을 터치며 착암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최고실적을 내는 지하막장의 탄부들, 증산의 동음으로 피눈물의 맹세를 결사관철해나가는 전력생산자들과 강철전사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가다듬으며 거름짐을 지고 달린 협동벌의 농장원들, 대건설장마다에서 불이 번쩍 나게 놀라운 위훈을 창조해나간 용맹한 군인건설자들과 열혈청년들…

천만의 충신, 투사들이 조선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해나갔다.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광휘로운 미래를 향하여 진격의 기상을 떨쳐나가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크나큰 힘을 얻으시며 장군님의 리상을 반드시 꽃피우실 자신의 의지를 다시금

확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가장 큰 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광명한 태양의 빛발이 찬란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작을 열어제낀 위대한 인민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이렇게 심장의 웨침을 터치였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은**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두렵지 않으며 그이를 따라가면 우리 장군님 그처럼 바라시던 번영의 상상봉에 반드시 올라서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더욱 굳히며 위대한 우리 인민은 그이의 두리에 팔을 끼고 어깨겯고 뭉쳐일어섰다.

령도자와 인민의 이 단결이야말로 지구가 깨여져도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불패의것이며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이 천겹만겹으로 겹쌓여도 맹호처럼 솟구쳐 돌진하는 조선의 기개는 절대로 꺾을수 없는것이였다.

세인을 감동시킨 격동의 시대상과 더불어 이 땅우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대경륜이 보다 높은 경지에서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그후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되였다.

위대한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어떻게 뭉쳐 그이와 함께 어떻게 강국시대의 전변의 새 력사를 열어나갔는가를.

아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

한사람의 체험에도 진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가장 신성한 진리는 천만의 한결같은 체험에 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오며 심장으로 체험한 우리 인민이 그이를 우러러 한결같이 터놓는 뜨거운 부름이다.

이 부름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꼭같으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다함없는 숭배심, 절대적인 충성심이 력력히 비껴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 안긴 그 순간부터 떨어져선 정녕 살수 없는 운명의 어버이로 그이를 따라나선 우리 인민이였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노래부르며 수령님을 노래하던 나날처럼,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말아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고 노래부르며 장군님을 우러르던 나날처럼 인민의 마음은 날

이 갈수록 그이에 대한 진실하고 열렬한 충성의 열기로 차고넘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김일성**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의 최고표현으로 되고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모든 우수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있다.》

세기를 이어가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일편단심 충성다해 받들어온 그 숭고한 전통을 이어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핵을 이루고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령도의 거장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의 숭배심이며 절대적인 신뢰심이다.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겹쌓이는 력사의 광풍을 이겨내며 전진해온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배와 매혹은 더욱 강렬해만졌다.

나에게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옵니다. 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하늘끝에 닿으시였기에, 인민에 대한 진정이 불덩이같으시였기에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겠다고 그렇게도 절절하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신 그 연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날의 결심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10년세월 위민헌신의 려정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였다.

그것은 말그대로 멸사복무였다.

자신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멸사복무는 회의장을 울리는 연설이 아니라 인민의 마음을 눈물로 적시는 희생적인 헌신이며 종이우의 글이 아니라 조국땅우에 무수한 인민의 재부로 아로새겨진 불멸의 서사시이다.

다시금 돌이켜볼수록 지나온 10년세월 어느 하루도 위대한

어버이의 멸사복무의 초침이 울리지 않은적이 없었다.

불같은 헌신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걷고걸으신 그 길우에서 릉라인민유원지, 창전거리, 류경원과 같은 창조물들이 일떠서며 2012년이 흘렀다.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이 련이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며 2013년이 흘렀고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인민의 보금자리, 아이들의 궁전에서 울려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는 속에 2014년이 지나갔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 안겨 행복에 넘쳐 원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로 시작된 2015년은 하늘에는 우리의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의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경이적인 사변과 함께 사랑의 보금자리로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며 라선땅의 천지개벽과 같은 인민사랑의 전설로 아로새겨졌다.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신께서는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한다는 위대한 어버이의 필생의 신조가 엄숙히 울린 2016년.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푸른 하늘을 펼쳐준 2017년과 우리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조선을 축으로 지구가 도는 새시대를 열어준 2018년,

인민을 위한 대륙횡단의 수만리 원정으로 시작하여 문명창조의 표본들인 삼지연시와 중평남새온실농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특색있는 준공식들과 조업식으로 막을 내린 2019년과 세계적인 대재앙과 혹심한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천신만고하여 무병무탈과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도 오히려 인민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뜨거운 감사를 드린 위대한 어버이의 진정의 고백이 온 세계를 세차게 울린 2020년,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이라는 위민헌신의 엄숙한 맹세로 시작되여 새로운 승리의 장엄한 진군과 더불어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숙원사업들이 과감히 진행된 2021년.

나라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는데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찾으시며 인민에 대한 뜨거운 혈연의 정을 지니시고 줄기차게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려정우에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태여나 만사람을 격동시켰던가.

안전란간도 없는 계단을 두개, 세개씩 오르시며, 설치중에 있는 릉라인민유원지 물놀이장의 물미끄럼대의 정점에까지 오르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던 헌신의 그 모습,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며 험한 건설장을 앞장에서 걸으시던 원수님의

수수한 운동화며 불편하신 몸으로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주택지구를 일일이 다 돌아보시던 그날의 가슴뜨거운 이야기…

물고기를 받아안고 좋아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시고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시여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같소라고 사랑의 친필을 적어나가시며 가슴에 차넘치는 희열을 한껏 터치신 원수님 아니시였던가.

천만식솔의 가슴속생각도 다 헤아려주시는 너무도 극진하고 뜨거운 육친의 사랑, 인덕이 하늘같으신 자애로운 어버이께 끝없이 매혹된 인민의 마음속에 꽉 들어찬것은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경모의 감정이다.

《지금도 우리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때가 눈앞에 선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너도나도 어푸러지듯 달려갔습니다. 그속에는 아이들도 있고 아기를 안은채로 달려온 녀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우리들은 속이 새까매졌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승용차의 전조등까지 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니 이런 대해같은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찌는듯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꿈만 같이

뵈옵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던 강원도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터치였던 격정의 토로이다.

이 나라 민심의 밑바탕에서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와 숭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분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인간적매혹의 분출이 온 강산을 진감하였다.

조국땅 한끝 신도군의 인민들이 목메여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륙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바다를 건너서야 올수 있는 그 곳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시였다. 너무도 꿈같은 소식에 누구나 자기 귀를 의심했다. 한입두입 건너 온 섬에 그 소식이 퍼지고 그이께서 군을 떠나가실무렵에야 사실임을 깨닫고 천방지축 부두로 물밀듯이 달려나왔던 사람들, 그만에야 그들은 오열을 터치였다. 그이께서 바다기슭의 험한 감탕길을 헤치시며 섬에 오르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우리 섬마을사람들이 뭐라고 그처럼 험한 길을 걸으신단 말입니까. 수십년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비내리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군을 찾아주시였는데 오늘은 또 경애하는 그이께서…》라고 하며 격정의 눈물을 쏟고쏟은 신도군인민들.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로부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들이며 수도의 평범한 시민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들,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과 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

이 나라 누구라 할것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잠간 만나뵙기만 하여도 끓어넘치는 격정속에 울고웃으며 그이의 품에 안겨들고 그이께서 떠나가실 때면 헤여지기 너무 아쉬워 발을 동동 구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한채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며 따라선 그 모습들.

결코 시킨 사람은 없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나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그들과 꼭같은 화폭을 펼칠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인것이다.

그것은 정녕 원수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이 나라 천만인민의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의 분출이며 지어낼수도 만들어낼수도 없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이다.

지금도 만사람의 뜨거운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불멸의 화폭이 있다.

큰물이 모든것을 삼키며 휩쓸어간 대청리의 험악한 감탕바다를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고 헤쳐오신 우리 원수님, 흙탕범벅이 된 차문을 열고 나서신 그이를 에워싸고 무서운 재난과

불행속에서 원수님을 제일먼저 뵈온것이 너무도 꿈만 같고 너무도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쏟던 수재민들…

우리 원수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진창속에 빠졌다는것을 알고 림시거처지에 씌운 나래까지 벗겨가지고 내의바람에 맨발로 허리치는 감탕을 헤치며 달려온 농장원들, 그속에서도 나래가 젖을가봐 머리우에 높이 들고 한달음에 달려와 원수님, 다시는 험한 길을 걷지 마십시오, 우린 일없습니다라고 거듭 아뢰인 소박한 인민들, 차는 떠났으나 인민들은 나래를 들고 계속 원수님을 따라서고 원수님께서는 달리는 차를 세우시고 일없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거듭 이르신 그 혼연일체의 화폭속에 이 나라 인민의 피보다 진한 마음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령도자에 대한 너무도 진실하고 열렬한 숭배와 매혹의 세계에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며 이렇게 토로하였던것이다.

《인민들이 령도자를 흠모하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나자신으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지 모를 지경으로 만들었다.》

《**김정은**각하를 열렬히 따르며 존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힘, 일심단결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위민헌신의 숭고한 력사가 력력히 흐르게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매혹과 절대적인 신뢰심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순결한 사상감정인것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오로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실성도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창밖에 눈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뿌려지는 날이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충심으로 바라고 그이께서 제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밤이 깊으면 쉬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 못이루는 인민, 뜻밖의 큰물로 가장집물을 다 잃었어도 살아갈 걱정에 앞서 원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이다.

적대세력들이 그 아무리 잡소리를 해대며 흔들어놓으려 해도 결코 흔들릴수 없는, 돈으로도 유혹할수 없고 핵몽둥이로도 깨뜨릴수 없는것이 바로 이 나라 인민의 심장마다에 억세게 자리잡고 영원히 식을줄 모르고 분출되는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열렬한 충성심인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신뢰와 지지는 결코 강요로 얻을수 없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안겨주시는 사랑이 너무도 고맙고 바치시는 로고와

심혈이 너무도 눈물겨워 인민은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에 마음 불타고 그이의 뜻과 구상을 받들어갈 한마음으로 심장의 피를 끓인다.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 위대하신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담은 노래가 하늘가 높이 울려퍼진다.

그이의 이야기 나누며 누구나 눈시울 젖고
그이의 노래를 부르며 누구나 행복에 겹네
낮이나 밤이나 그 정이 우리의 곁에 감돌고
따뜻한 사랑의 그 시선 집집에 닿아있네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 위대하신 우리 령도자
인민은 한마음 믿고 따르네 아 **김정은**동지
…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이 나라 인민의 가장 깊은 속마음은 어디에서 읽을수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근면함과 슬기로움, 순결함과 선량함, 수수함과 외유내강…

그 누구에게도 견줄수 없는 우리 인민의 모습은 풍부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다른 인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명실공히 위대한 인민이라고 자부할수 있는 심장과도 같은것이 있다.

세월의 흐름속에 더욱 열렬해지며 시련속에 더욱 억세여질뿐 아니라 그 어떤 광풍이 불어도 퇴색을 모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심을 모르는 신성하고 위대한것.

그것은 바로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이다.

아마도 이 지구천지에 이처럼 순결무구하고 영원불멸하며 강직하고 진실한 뜨거운 인민의 량심, 인민의 지조, 인민의 감정은 없을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승리와 영광의 나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더욱 승화되고 공고해

진 나날이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억년드놀지 않을 굳센 신념은 곧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 해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원수님께 운명과 미래를 모두 의탁하고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려는 충성의 일편단심이다.

그렇듯 투철한 신념과 의리를 지니였기에 우리 인민은 2012년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2016년 5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6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2019년 4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그리고 2021년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등 력사적인 계기때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는 중대한 정치적사변들을 안아올수 있었다.

세상이 일치하게 경탄하여마지 않은것처럼 이러한 정치적사변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지하는 우리 인민의 신뢰심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이 만천하에 남김없이 과시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검증되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며 받드는 우리 인민의 충심의 세계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고부동한것인가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뚜렷이 검증되고 과시되였다.

력사적으로 보면 혁명의 변절자, 배신자들은 례외없이 시련의 시기에 머리를 쳐들고 도전해나섰다.

우리 인민이 12월의 피눈물의 바다에서 결연히 일떠서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생눈길을 헤쳐나가던 준엄했던 그 시기에 감히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드러내놓은 현대판종파의 무리들 역시 바로 그러했다. 가장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직면했던 시기를 기회로 당의 령도를 거역해나선 현대판종파일당의 배은망덕한 범죄행위는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주체102(2013)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현대판종파분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시였다.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현대판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숙청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적결단을 우리 인민은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더욱 믿고 따를 신념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웠다.

천만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담아 12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던 노래가 오늘도 메아리쳐온다.

…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리라

활화산마냥 끓어넘친 수령옹위의 그 도도한 기상이야말로 세기를 이어오며 어렵고 준엄한 때일수록 언제나 한마음 자기 수령만을 변함없이 믿고 끝까지 따라나섰던 위대한 인민의 고귀한 전통과 철석의 의지가 낳은 불굴의 기상이였다.

지나온 력사가 증명한것처럼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하고 수십성상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훌륭한 인민이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 인민이 지닌 수령에 대한 믿음과 충실성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불변한것인가를 생생히 새겨주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력사의 갈피마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때였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김일성**장군을 찾아가야 이긴다고 하면서 북두칠성을 우러르며 북으로 북으로 걸음을 다그치던 법동로인,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문제없다고 힘을 주던 락원의 10명당원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저찌고 떠들어도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한다고 하던 전후시기의 태성할머니, 불속에 뛰여들어 한몸으로 구호문헌을 부둥켜안고 숨진 무재봉의 영웅들, 지구상에 사회주의붕괴의 역풍이 휩쓸던 그때 《당

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을 옹위해나선 청년전위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수령을 전적으로 지지해나선 수령옹위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으로 고난과 시련이 날로 가중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여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고있다.

수령결사옹위,

이는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서 생명선으로, 심장의 피줄기처럼 굳건히 형성된 우리 인민의 승리의 전통이고 삶과 투쟁의 영원한 방식이다. 그렇듯 위대한 전통과 력사에 받들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수령옹위가 그 어떤 폭풍에도 굽힘없는 투철한 혁명적기질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키우신 영웅적인 우리 인민은 조국이 무엇이고 인간의 참된 삶이 어떤것이며 혁명의 최고존엄을 지키고 자기의 만복을 꽃피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고있으며 열혈의 심장과 불굴의 투쟁으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2015년 8월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시기를 돌이켜보자.

제국주의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정의의 싸움에서 이 나라 인민은 과연 무슨 힘으로 전쟁의 난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무전무혈의 대승리를 이룩하였던가.

막강한 단결의 힘, 수령결사옹위의 위력으로 전쟁의 참화를 막아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당창건 일흔돐을 향한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원쑤격멸의 심정으로 하루생산량을 넘쳐 수행하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된 격동적인 현실앞에서 도발자들은 전률하였다.

그 나날 전국도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모임이 열리고 맹세문이 채택되였음을 오늘도 그때의 가슴치는 구절구절들이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적들은 주체조선의 의지와 배짱이 어떤것인지,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자들이 갈길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

전선은 전선대로, 후방은 후방대로 애오라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만을 바라는 불타는 마음을 최고사령부를 우러러 아뢰였다.

그렇듯 뜨거운 진정을 한가슴에 안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난 며칠동안 전선지대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여왔는데 그들은 편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생명의 전부이고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키겠으니 나더러 마음을 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꼭 승리한다고, 원수님만 믿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편지들을 보면서 이런 위대한 인민이 있는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

인류력사에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불사르기 위한 정의의 성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수령보위를 조국번영의 보검으로 간주하고 목숨걸고 성전에 떨쳐나선 인민은 있어보지 못하였다.

수령옹위의 길에서 우리 인민은 추호의 타협과 용서를 모른다.

세계는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이 《참수작전》, 《선제타격》 등의 나발질을 해대며 《인공기표적》사건, 《구호 또는 현수막》사건과 같은 특대형사건을 일으키다 못해 우리의 지도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하겠다고 감히 망동질을 해댈 때마다 우리 인민의 분노가 얼마나 치솟았고 보복의지

가 얼마나 드세찼던가를 말이다.

우리 인민의 정신적기둥이며 운명의 태양인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 천고의 그 죄악,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정의로운 위대한 인민을 모독하고 우롱한 그 죄과는 세상이 깨여지는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결산해야 한다는것이 막을수 없는 이 땅의 민심이였다.

《자멸을 재촉하는 무리들을 송두리채 불태워버리자.》,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린 쓰레기들을 모조리 칼탕쳐죽이자.》, 《우리의 신성한 핵을 모독하고 우리 전체 인민을 롱락한 무리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

이 땅이 그대로 징벌의 분화구로 되여 뿜어올리는 그 거대한 분노와 보복의 폭발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었다.

멸적의 기세로 천만이 총궐기해나선 수령결사옹위성전앞에서 도발자들은 기절초풍하였고 세계는 우리 인민의 수령옹위정신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여도 우리 인민의 명줄이고 생명인 수령결사옹위의 바통은 더욱 억세게 이어지고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라는 결사옹위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고 한몸이 그대로 천쪼각, 만쪼각이 되여 저 하늘에 뿌려지고 격랑사나운 망망대해에서 홀로 숨진다 해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만장약한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서사시마냥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내 조국이다.

자기의 령도자를 옹위하는 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인 유명무명의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2013년 5월 8일부 《로동신문》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교통지휘대 대원의 영웅적소행을 소개한 기사 《우리 당이 사랑하고 조국이 자랑하는 네거리의 영웅초병》이 실려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나이는 22살, 입대한지 5년밖에 안되는 나어린 처녀인 리경심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었던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는 인민들의 마음처럼 그 역시 원수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멀리 현지지도의 길을 떠날 때에는 그이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며 바래워드리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으로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안타까이 기다리군 하였다.

눈보라치는 깊은 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거리를 지날 때면 삼가 거수경례를 드리면서 현지지도의 먼길 떠나시는 그이를 마음속으로 따라서고 또 따라선 그는 이른새벽 진눈까비를 헤치며 원수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거리에 들어설 때면 끝없는 기쁨에 어깨를 들먹이며 정중히 신호봉을 들어올리군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받들고 결사옹위해갈 굳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말은 초소를 수령보위의 성새로 여기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왔기에 그는 예견치 않았던 위기일발의 순간에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육탄용사가 될수 있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심을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결사옹위에 바친 삶처럼 값높은 생은 없다.

리경심과 같은 참다운 충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히 빛나고있다.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수 있었지만 한목숨바쳐 절세위인들의 초상화와 당의 기본구호들을 안전하게 보위한 삭주땅의 새세대 결사옹위투사들에 대한 이야기, 불길속에서 온몸이 타들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과 구호나무를 결사보위하여 21살의 애젊은 청춘을 바친 단천시인민보안서(당시)의 리선일에 대한 이야기, 범람하는 세찬 물결속에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절세의 위인들의 초상화를 지켜낸 신흥땅의 애어린 한현경학생에 대한 이야기, 《더는 배를 구원할 가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였다. 념려말라!》는 마지막전파를 날리고 최후를 마친 어로공들과 해양연구사들에 대한 이야기, 광란하는 날바다우에서 38시간동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결사보위한 평범한 공민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기 나라의 여러곳에 참혹한 자연의 광란으로 대재앙이 들이닥치던 그때마다 피해지역의 인민들이 보여준 하나와 같은 감동적인 화폭들이 있다.

모든것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려는듯이 사품치며 밀려오는 물결속에서 가산은 물론이고 혈육마저 잃으면서도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초상화와 모자이크벽화들, 영생탑들, 사적지들을 먼저 지켜낸것이였다.

몇해전 라선의 큰물피해를 직접 목격한 한 외국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가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른이고 아이고 가슴에 꼭 안고있는것이 있어서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같으면 돈이나 물건부터 건지고 제 목숨부터 생각했을것인데 이런 깨끗한 인민들을 처음 봅니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자연의 대재앙에 휘말려들어 순식간에 모든것을 잃는 속에서도 자기들때문에 가슴아파하실 우리 원수님을 먼저 생각하였고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눈물을 머금던 피해지역 인민들이였다.

이렇듯 깨끗한 충실성의 밑바탕에는 우리 인민만이 간직한 굳건한 믿음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손길만 꼭 잡으면 억만금을 잃어버린다 해도 다시 일떠설수 있고 그 어떤 재난속에서도 살아날수 있으며

설사 죽음을 마주 향해가는 길이라도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다는 믿음인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그전에 비할바없이 엄청난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세가 변천하고 조건이 어렵다고 하여도 추호의 흔들림이나 변색을 모르고 더욱 승화되는것이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며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영광의 단상에서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과 결심을 그 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있다고, 설사 그것이 더 큰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듯 강렬하고 진정어린 믿음과 고무격려는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수 없고 수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부이며 두려움과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무한대한 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세상천지가 뒤바뀐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재앙이 열백번 휩쓸어도 끄떡하지 않는것이 바로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그이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우리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이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오직 그이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의 강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한치의 동요도 없이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것이다.

한없는 그리움속에 사는 인민

령도자와 인민이 맺은 혈연의 정과 더불어 한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날이 밝고 해가 지는 이 땅우에 자애로운 어버이를 못견디게 그리워하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그리움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진다.

낮에도 밤에도 울리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나 불리워진다. 공장에서도 협동전야에서도, 불꽃이는 건설장과 날바다의 풍랑우에서도, 도시의 창가들에서나 외진 섬마을에서도 우리 원수님을 목메여 그리는 인민의 노래가 메아리친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절세의 위인을 칭송하는 수많은 노래들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널리 불리워지는 노래는 다름아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자나깨나 그리며 사는 이 나라 인민의 진정이 담긴 그리움의 송가들이다.

《언제나 그이곁에》, 《그리움》,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 《그리움은 나의 행복》, 《밤하늘의 별이여》, 《그리움의 하얀 쪽배》…

온 세상에 쉬임없이 울려가는 노래들마다에 어린 그리움의 강렬한 서정에 몸을 담그면 이 나라 민심의 가장 깊은 곳이 보이고 용암같은 민심의 근원을 찾을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령과 인민이 혈연의 정을 맺고 끝없이 그리워하며 그 일심일체의 힘으로 승리만을 떨치는것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통이고 자랑스러운 국풍이다.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을 노래부르며 이 땅의 인민은 새 조선을 일떠세우고 가렬한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으며 재더미우에서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 자위적국방공업을 가진 기적의 나라를 떠받들어올렸다. 걸음걸음이 신념이 없이는 내짚을수 없는 길이였고 순간순간이 극한점을 돌파해야 하는 결사전이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와 같

은 노래들을 부르며 힘을 가다듬고 미래를 확신하며 력사의 만난시련을 넘고 헤쳤다.

그 고귀하고 숭고한 그리움의 세계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어떻게 이어지고 더욱 승화되고있는것인가.

자나깨나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사는 이 나라 인민의 모습을 통해서도 절세의 위인의 품속에서 더욱 성장한 위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심을 뚜렷이 새겨안을수 있다.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은 단순한 지지나 신뢰를 초월한 강렬한 친화의 감정에서 우러나오는것이다. 그것은 결코 한두번의 흥분이나 일정한 계층의 리해관계로 하여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인민의 운명과 뗄래야 뗄수 없이 이어진 령도자의 품, 그 품을 떠나 존재도 미래도 생각할수 없는 인민의 사상감정이 시대의 주도적흐름으로 확고해졌을 때 이루어지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나깨나 그리며 사는 이 나라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 그것은 심장으로 터치는 고마움의 인사, 한없이 귀중하신 어버이를 잠결에도 더듬어찾는 운명의 부름이다.

만물의 생장에서 해빛의 은혜로움을 느끼고 궤도를 도는 행성들을 보고 태양의 인력을 알수 있듯이 인민은 나날이 꽃피고 무르익는 행복의 열매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위인상을 경건히 새겨안았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빛나는 구현과 더불어 인민의 존엄과 긍지는 하늘에 닿았고 내 나라 강산이 문명의 별천지로 나날이 전변되는 건설의 대번영기, 한두개 부문이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부문에서 아침저녁으로 변이 나는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불패의 국력으로 나라의 전략적지위가 급부상하였고 전쟁에로 치닫던 엄중한 국면이 평화번영의 흐름으로 바뀌여지며 민족의 숙원을 성취할 희망찬 새시대가 열려지게 되였다.

《강력하고 멋있는 지도자》,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 《특출한 외교력을 과시하시는분》, 《전략적으로 능숙하신 지도자》,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 《몇세기에 한번이나 출현할수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 …

만민이 우러르는 태양에 대한 감사와 격찬의 목소리는 행성을 진감한다.

하지만 그 모든것에 앞서 더욱 강렬한 감정이 천만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가시는 위인의 헌신의 세계에 매혹되여 하루한시도 그이와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이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인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온몸이 불같이 달아오르시여 그 정과 사랑을 다 주지 않고서는 못견디시는분, 꿈결에서조차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쪽잠마저 미루시고 자신을 깡그리 불태워가시는 위대한 인간에게 어찌 매혹되지 않을수 있으랴.

생각하면 할수록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강렬한 삶의 요구이며 운명의 명줄과도 같은것이다.

세월의 저 멀리 백두광야의 눈보라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선렬들이 그러했고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도 최고사령부를 그려보며 적후천리 험난한 길을 한달음에 달려간 전화의 영웅전사들이 그러했으며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을 심장으로 따라서며 기대결을 떠나지 않은 고난의 그 시절의 우리 인민들이 그러하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그리움의 숭고한 세계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보다 높이 승화되여 오로지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는 충직한 인민만이 부를수 있는 그리움의 서사시를 매일 매 시각 수놓아가고있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낮이나 밤이나 끝없이 울리는 그리움의 노래는 꿈결에도 원수님을 뵙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의 분출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찬눈길 걷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

정을 안고 살면서도 그이의 현지지도소식을 기다리는 인민들.

일을 하다가도 문득 기대앞에서, 막장과 포전, 교단과 연구실에서 원수님을 꿈같이 만나뵈올것같아 가슴울렁이고 깊은 밤을 새우며 일하면서도 그이의 발걸음소리가 기다려지는 것이 인민의 마음이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현지지도단위들에 가보아도, 그이께서 만나주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그이의 인자하신 영상, 친근한 음성을 가슴속깊이 안고 사는 이 나라 인민의 진정을 뜨겁게 절감할수 있다.

따뜻한 그 정을 공기처럼 마시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생명의 량식처럼 안고 사는, 그 정이 없으면 숨이 멎고 그 그리움만 지니면 지구도 드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유서깊은 백두대지에 위훈의 구슬땀을 력력히 새겨놓은 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혜산에서 삼지연까지 시원하게 뻗어간 넓은철길, 1만여㎥의 옹벽이며 산허리를 꿰질러나간 수많은 기차굴들과 철다리들, 삼지연시의 관문답게 훌륭히 꾸려진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 산간문화도시의 전형, 본보기로 일떠선 삼지연시의 희한한 전경, 포태지구의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이 거창한 전변을 안아온 기적의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그리움이였다.

령하 45℃, 돌멩이도 날려보낸다는 눈보라폭풍속에서 그냥 오르자고만 해도 힘든 백두산벼랑길을 무거운 계단돌을 지고 오른 건설자들, 단 한주일동안 옹근 하나의 산을 쌓는것과 같은 방대한 성토과제를 해제낀 백두산영웅청년려단 돌격대원들, 천정 곳곳에 고드름이 맺히고 온통 부사층구간이여서 위험이 시시각각 따르는 붕락구간을 뚫고 차굴을 완성한 전투원들…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들이 결코 무쇠로 된 육체를 가지고있는것은 아니다. 피가 있고 살이 있으며 피곤이 몰리면 잠자리가 그리워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육체적한계점을 초월하게 한, 해낼수 없는것을 해낸 불가항력적인 힘은 다름아닌 강렬한 그리움이였다. 삶의 순간순간이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충만된 인간들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기적에로 떠민 힘은 결코 어떤 청년혈기나 묘술이 아니였습니다. 더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극한점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지어 숨이 지는 순간에도 눈을 번쩍 뜨고 일어서게 한 불사약은 바로 우리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였습니다.》

건설장의 한 지휘관의 이 진실한 말이 다 이야기해주고있다.

어찌 백두대지의 전투원들뿐이겠는가.

여기에 바다물에 절고 땀에 젖은 한 돌격대원의 일기장에 씌여진 자작시 《꿈》의 한구절이 있다.

오늘 나는 깜빡 졸았다 꿈을 꾸었다
내 생에서 가장 환희로운 꿈을
원수님 우리 공사장에 오시였어라
…
내 산더미같이 쌓은 용접봉
밤낮으로 태우고 녹여
완공의 그날을 맞을 때
아쉬웠던 꿈의 세계 다시 한껏 펼치리
만세소리 끓어번지는
환호의 대오의 맨 앞장에 내가 서리

소박한 이 시구절에 사나운 날바다와 억척같이 싸워온 그나날 불타는 그리움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간절한 그리움속에 하루하루를 총화한 영용한 고암—답촌철길건설자들의 심장속에 끓어번진 열화같은 진정이 그대로 비껴있다.

《수도당원사단 전투원이 된 이후부터 여느때없이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하늘같은 믿음이 담긴 우리 원수님의 공개서한을 받아안으며 울었고 온 나라 인민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다바람 세찬 홍원군의 피해복구전구에서 우리 원수님을 뵈옵는 순간 지금껏 마음속에 가득찼던 그리움이 폭포같은 눈물이 되여 또다시 하염없이 쏟아져내렸습니다.》

2020년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투에 달려나갔던 수도당원사단의 한 지휘관이 터친 이 격정의 토로는 또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것인가.

정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꼭같은 심정, 꼭같은 목소리로 누구라 없이 원수님을 목메여 부르고 흐르는 공기마저도 그리움의 숨결로 후더웁고 솟는 해, 지는 해도 그리움의 시간으로 이어지고있는 내 조국강산이다.

어렵고 힘든 곳, 멀고 외진 곳에 갈수록, 소박한 인민들속으로 더 깊숙이, 더 속속들이 들어갈수록 경애하는 그이에 대한 정과 그리움의 세계는 더 진하고 열렬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진 은파군 대청리에 가보면 류다른 아침풍경을 볼수 있다.

사람들모두가 첫닭이 울기 바쁘게 일어나 제 집마당보다 먼저 마을앞으로 뻗어나간 길을 쓴다. 이제는 옛 흔적을 찾아볼수 없는 미끈한 도로이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원수님 걸으시였던 그날의 험한 진창길이 그대로 새겨져있다. 흙물묻은 승용차차창을 눈물로 닦아드리

던 그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가시고싶은 심정이여서, 《좋은 길 가실 때까지 따라서자.》는 못잊을 8월의 그 웨침을 영원히 안고 사는 마음이여서 자기 집마당이 아니라 평양과 잇닿은 길부터 정성다해 쓸고 또 쓰는 마을사람들이다.

《우리 원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못잊을 감격의 그날이 떠올라 잠자리에서 뛰쳐일어나 포전으로 달려나가는 금천군 강북리인민들, 원수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포전의 흙을 붉은 주머니에 떠안아 정히 간수하고 그리움의 노래와 함께 포전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그곳 인민들이다.

《낮에도 뜨는 북두칠성》, 새로운 건설신화가 창조되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글발이 나붙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을 안고 달리고있다고, 북두칠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빛나고있다고 웨친 건설자들의 모습에서 령도자와 한시도 떨어져 살지 못하는 이 나라 인민의 강렬한 진정을 읽을수 있는것이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분분초초 뜨거운 격정으로 높뛰였던 2019년의 열흘낮, 열흘밤을 잊지 못하고있다.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진정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하고 열

화같은 그리움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세계가 알고 력사가 다시금 새기게 한 조선의 열흘낮, 열흘밤이였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며 따뜻이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신문지면과 TV화면에서 뵈옵는 그 순간부터 이 나라의 천만식솔들의 심장속에서는 세찬 그리움의 격랑이 일어번졌다.

가정생활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으며 일본새가 혁신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외국방문소식이 사람들의 첫 인사말로 되였고 어디서나 원수님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른아이 할것없이 누구나 세계지도를 마주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쯤은 어디에 계실가 하는 생각으로 심장을 끓이고 일기예보를 들으면서도 원수님 계시는 그곳의 날씨는 어떠할가 하는 걱정으로 어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과 백옥같은 량심을 안고 먼길 떠나신 아버지를 그리는 자식들의 마음으로 하루, 한시간, 일분일초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우리 원수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을 안고 돌아오시는 그날에는 자랑찬 실적의 꽃다발을 드리자고 너도나도 하루를 백날맞잡이로 일터마다에서 놀라운 혁신적성과들을 창조하였다.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

음이고 그리움이라지만 천만인민의 불타는 그리움은 그대로 자력갱생의 창조물이 되고 기적의 열매가 되여 알차게 주렁지였다.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착암기가동대수를 4대로부터 6대로, 교대당 한 발파로부터 두 발파로 늘이였다는 검덕의 금골광산 박태선영웅소대 광부들의 미더운 모습이며 매일 정량의 2.5배에 달하는 직기를 맡아 하루계획을 초과수행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포공처녀의 땀젖은 얼굴,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매일 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한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위훈 그리고 우리 원수님 돌아오시는 그날 더 큰 기쁨을 드리자고 두줄기 궤도를 힘차게 달려 상반년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는 정주기관차대 혁신자들의 장한 모습…

조국땅 어디에나 새겨진 자랑스러운 기적과 위훈의 이야기를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사실 이 지구상에서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흔히 보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와 같이 전체 인민이 먼길 떠나신 자기 령도자의 안녕만을 애오라지 바라며 날과 날을 지새우는 그렇듯 진실하고 열렬한 그리움의 세계를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오직 이 땅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수령과 인민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내 조국에서

만 안아볼수 있는 그리움의 최고정화인것이다.

그때 세계가 이 땅에서 활화산마냥 강렬하게 터져오르는 그리움의 열풍, 충성의 열파에 놀라운 시선을 보내며 경탄을 금치 못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것이다.

정녕 령도자와 멀리 떨어질수록 더더욱 못견디게 그리워하는 인민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로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 품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인것이다.

저 외진 섬마을과 두메산골의 마지막가정에 이르기까지, 붉은넥타이 휘날리는 소년단원들로부터 총쥔 병사들과 지하막장의 탄부들, 전야의 농민들과 야금기지의 용해공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라 할것없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안고 사는 그리움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과 하늘같은 믿음, 이것이 우리 인민이 숨쉬며 전진하게 하는 넋이고 생명이며 고난속에서도 세상을 굽어보며 미래를 락관하게 하는 정신적재부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되게 하는 핵이고 속성이며 조선인민이 영원히 수령의 인민으로 존엄떨치게 하는, 그 무엇으로써도 변이시킬수 없는 영구불멸의 유전자이다.

수령의 품을 떠나면 그땐 벌써 조선인민의 이름에서 《위대한》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다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안

았기에 조선인민은 돈이나 재물을 믿고 사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령도자만을 믿고 그리움과 정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며 그것으로 고난을 락으로 삼으면서 강국의 래일을 가꾸어가고있다.

지구상에 나라와 인민이 많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서와 같이 전체 인민이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삶의 희열과 보람을 찾는 그런 나라와 인민은 없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그리며 그이를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가려는 충직한 인민의 세월은 이 땅우에 영원히 흐를것이다.

원수님을 위하여 무조건, 끝까지!

력사의 온갖 도전과 광풍을 맞받아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용암처럼 끓어넘치는 신념의 웨침이 있다.

우리 원수님을 위하여!

김정은시대의 가장 신성하고 값높은 삶의 좌우명으로 되고 있는 이 충성의 부름속에는 수령의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기상이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결사관철은 우리 인민특유의 투쟁정신, 혁명방식이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가장 순결하고 진실한 충의심을 지니고 수령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의 행동실천으로 받들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인민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시련이 겹쌓일수록, 투쟁과업이 방대할수록 더 높이 발휘되

는것이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 결사의 실천력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지난 10년간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완벽하게 관철해나가는 천만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이 최상의 높이에서 발휘된 나날이였다.

수령이 바란다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의 용기와 기백이 있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본분으로, 삶의 요구로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이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거창한 대건설을 작전하시면 건설의 대번영기로 화답하고 정면돌파전을 호소하시면 자력자강의 힘찬 포성으로 호응해나섰다.

결사관철의 그 길에서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기 전에 죽으나사나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빛나는 승리라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한 우리 인민이다.

수풀처럼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들이며 나라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경이적사변들, 자력자강의 귀중한 산물들이 그것을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탁월한 령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

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인민군대를 앞세워 마식령속도, 조선속도와 같은 눈부신 시대속도의 창조와 더불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수령의 명령지시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기풍이 차넘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전체 인민은 인민군대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본받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무조건적인 지지와 실천으로 화답하였으며 위대한 인민의 충성심이 어떤것인가를 뚜렷이 립증하였다.

그 대표적실례들이 바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제8차대회를 계기로 벌어진 충성의 70일전투, 200일전투, 80일전투에서 우리 인민이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이룩한 자랑찬 투쟁성과들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열어 우리 당의 35년의 투쟁사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실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그후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전체 인민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절세위인이 인민을 믿고 호소한 충성의 70일전투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전 인민적인 총동원전, 당정책결사옹위전이였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천만인민모두가 영광의 대회장에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떳떳하게 들어서기 위해 용기백배 총돌격, 총매진하여 기적적인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70일전투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실천적모범으로 우리 인민을 이끄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여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시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 단위들과 건설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온 나라가 빛나는 승리로 당대회를 맞이하도록 하시기 위해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충직한 우리 인민은 70일전투의 나날에 수령의 부름이라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결사의 의지와 자강의 힘으로 승리만을 떨쳐가는 위대한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결사관철의 영웅적투쟁과 더불어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이 가증될수록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라 전국적인 전투계획이 공업생산액적으로 144%로 넘쳐 수행되였으며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공업생산이 1.6배로 장성하였을뿐 아니라 수백개의 대상이 준공, 조업 및 개건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할것을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열렬히 호소한 황철로동계급이 70일전투 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각각 129%, 111%로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수많은 새형의 기계설비들이 개발되여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로력적선물로 마련되였으며 치렬한 어로전투를 벌려 물고기잡이와 바다나물생산계획을 110%이상 초과완수한 수산부문의 놀라운 성과를 비롯하여 70일전투의 전구들마다에서 창조된 기적적성과들은 모두가 천만인민의 투철한 결사관철의 의지가 낳은 고귀한 결실들이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로 훌륭히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만 놓고봐도 그렇다.

령도자에게 무한히 충직한 열혈청춘들은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를 청춘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운데 이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주체104(2015)년 10월 몸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당중앙은 영웅청년들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며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다음해 청년절까지 무조건 끝낼것을 명령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은 청년돌격대원들모두가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며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에 총궐기하였다.

3호발전소건설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최악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대자연개조전투였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위대한 령도자의 슬하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난 청년건설자들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영광의 5월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로 마련할 맹세를 다짐하고 산악같이 떨쳐나섰으며 령하 30℃를 오르내리고 혹한과 강설이 들이닥치는 북부고산지대 겨울철의 기상기후조건, 불리한 수송조건 등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키운 청년돌격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갔다.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하여 기계수단을 리용할수 없는 외진 산중에서 함마전으로 천연암반을 까내고 산을 들어내며 기동로를 개척하고 무릎까지 빠지는 차디찬 감탕물속에서 타입전투를 진행한 돌격대원들의 공격전으로 하여 건설장은 백열전이 벌어지는 준엄한 전구를 방불케 하였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강풍과 쏟아져내리는 폭설, 살을 에이는 혹한속에서도 《가리라 백두산으로》, 《타오르라 우등불아》를 비롯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동치는 혁명의 노래로 기세를 올리고 기계수단마저 얼어붙으면 골재마대와 장석질통을 지고 달리며 《결사관철》의 구호를 웨치는 청춘들의 힘찬 목소리, 발구름소리가 백두의 산발들에 메아리쳐갔다.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는 속에 24시간동안에 언제를 1만 2 000여㎥나 쌓아올리는 기적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였고 한달동안에 총공사량의 50%를 해제끼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진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영웅청년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마침내 그이께서 주신 명령을 넉달이나 앞당겨 3호발전소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대진군의 나날 천만인민은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는 전투적면모와 영웅적투쟁기풍을 그 어느때

보다 높이 발휘하여 70일전투를 자랑찬 승리로 결속하고 당 제7차대회를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였다.

력사적인 70일전투에서 이룩된 승리를 확대발전시켜 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뜻깊은 2016년을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목적밑에 진행된 200일전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일전투는 말그대로 전 인민적인 련속공격전, 강행돌파전이였으며 전례없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였다.

원수님 가리키시는 길은 곧 과학이며 승리라는것을 실체험으로 간직한 천만인민은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뜨락에 이어놓고 일터마다에서 불꽃튀는 백열전을 벌리며 충성의 200일전투기록장에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위훈을 아로새기였다.

국방과학부문에서 주체조선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전략무기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미싸일 《화성-10》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단행되였으며 류례없는 큰물피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는 전대미문의 복구전쟁을 치르면서도 200일전투의 각 방면에서 방대한 전투목표가 앞당겨 점령되였다.

200일전투의 나날에 힘있게 전개된 거창한 투쟁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대중은 무에서 유를 낳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영웅신화를 창조하며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불변의 법칙을 다시한번 실

증해주었다.

200일전투의 자랑찬 쾌승, 그것은 그 어떤 난관과 도전앞에서도 순간의 멈춤도, 두려움도 없이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투쟁방식이 얼마나 억세고 위력한가에 대한 뚜렷한 과시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긍지높이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80일전투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또 어떠하였는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 모두다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무한히 고무된 천만인민은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당 제8차대회장으로 향한 충성의 80일전투에 용약 떨쳐일어났다.

정녕 심장이 끓고 기세가 충천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10월의 그날 온 나라 인민이 삼가 올리는 감사의 큰절을 받으셔야 할 우리 원수님 오히려 인민들에게 거듭거듭 정말, 정말 고맙다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넘치는 진정 정중히 삼가 올린다고 말씀하실 때 솟구치는 격정으로 목메여 흐느낀 이 나라 인민이였다.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

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확언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진정은 그대로 8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가슴마다를 뜨겁게 불태워주었다.

《이 한목숨 기꺼이 바쳐서라도 선봉대, 결사대의 용맹을 떨쳐나감으로써 로동당원의 심장이 얼마나 붉은가를 뚜렷이 보여주겠습니다.》

《혁명선배들앞에, 맑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후대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어이 80일전투의 자랑찬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80일전투장에 나선 천만인민의 불굴의 신념이였고 당 제8차대회를 떳떳하고 긍지높이 맞이하려는 강렬한 지향이였다.

80일전투의 진군포성을 울려주시고 멀고 험한 길을 이어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좌지를 찾으시여 고무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기적적성과로 화답할 결사의 각오로 동해지구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과 철의 기지들, 협동전야를 비롯하여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었다.

80일전투의 나날 비상한 각오와 투지, 애국의 열망으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며 나라의 쌀독을 채우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한 농업근로자들의 장한 모습에 원수님을 받드는 이 나

라 인민의 충성심의 깨끗한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당시 횡포한 자연의 광란은 식량증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몰아왔다.

하지만 80일전투승리의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전투원들의 열의는 여느때없이 충천하였다.

《…탈곡을 다그쳐 끝내느라 밤새워 일하지만 요즘은 어쩐지 힘든줄 모르겠구나. 쌀이 많아야 군대나간 내 아들이 조국방선을 굳건히 지킬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쌀이 많아야 80일전투에서도 우리가 승리할수 있다는 생각에 일을 하고 또 해도 도무지 성차지 않는다. …》

이것은 재령나무리벌의 한 녀인이 초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구절이다. 이 소박한 편지에서 애국농민들의 진정을 그대로 읽을수 있다.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추억하는 태풍이 지나간 뒤의 20일철야전은 그대로 결사관철의 분분초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농업과학자들과 함께 분무기의 손잡이를 총가목마냥 억세게 틀어잡고 포전에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한 그들이였다.

쓰러지는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전을 떠날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갈이 든 입술을 악물고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원수님께서 벼대가 일어섰다는 소식을 기다리신다고 절절히 속삭이며 충성의 돌격전을 줄기차게 벌

렸던 그들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다.

불보다 더 뜨거운 충성심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태풍에 쓰러졌던 벼포기들이 다시 일어섰으며 무수확이라고 생각했던 포전에서 그 전해보다 오히려 1t이상의 알곡을 증수하였던것이다.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였다는 더없는 기쁨을 안고 모두가 노래 《그리움》을 부르며 한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게 한다.

결사관철의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며 고난을 맞받아 승리와 거창한 변혁의 력사를 창조하는 인민에게는 넘지 못할 장벽이 없는것이다.

세계는 불굴의 기상을 떨치며 80일전투목표들을 긍지높이 점령하고 당 제8차대회를 떳떳이 맞이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을 보면서 다시금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실천해내는 우리 인민의 투쟁풍모는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월초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되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하시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인 투쟁강령을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이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통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면서 전체 인민들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천만인민모두는 전 인민적인 총진군을 힘있게 벌려 당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길이 있다는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장엄한 진군길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당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전에는 물러설 권리,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억척의 신념으로 전체 인민이 끊임없이 분발하고 분투하였다. 1950년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견인불발의 투쟁으로 막아서는 도전과 난관을 강행돌파해나가며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진군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갔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은 혹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어떻게 해서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여 평가할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것은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것인데 이것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였다.

지난해 12월에 있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하시며 농업근로자들에게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물론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인민들모두가 끓어오르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줄기찬 투쟁의 결과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고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가 마무리되였으며 검덕지구 5 000세대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큰물피해복구가 원만히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방대한 대건설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이 크게 과시되였다.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부문에서 수십개의 굴진

단위가 2년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혁신적성과들이 일어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5개년계획의 첫해 계획수행에서 진일보의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해 진군에서 이룩된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결사관철을 체질화, 습벽화한 전체 인민의 강의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변화들을 이루어낸 2021년이야말로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이라고 당당히 자부하는것이다.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지혜와 용기를 합치며 언제나 당중앙의 구상을 관철하는 길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온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기백은 지금 더욱 분발승화되고있다.

올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신심은 충천하다.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휘황한 길을 열어나가시는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뜻과 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기에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는 확정적인것이다.

빛나는 영생은 인민의 불타는 마음에

영생은 추억이라고, 영생은 그리움이라고 말해왔다.

너무도 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영생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수록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산천초목도 비분에 몸부림치고 하늘도 끝없이 울던 잊지 못할 피눈물의 12월로 달려간다.

있어서는 안되였던, 잊을래야 잊을수 없었던 대국상의 그 12월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10번째 년륜을 새기며 흘렀다.

돌이켜볼수록 지나온 10년세월은 충실성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의 도리를 다해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창조해온 충성과 의리의 성스러운 10년이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속에 그이와 영결하던 추모의 그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장군님께서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

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가슴터지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며 온 나라 남녀로소모두는 강추위속에서도 낮이나 밤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뜻깊은 곳들을 찾아가 가슴을 치며 오열을 터치였다.

영결행사에서 장군님을 생눈길에 모실수 없다고 하며 자기들의 솜옷을 벗어 도로에 펴드리고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목놓아울면서 령구차행렬을 에워싸던 인민들을 보면서 세상사람들은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의 진정에 커다란 충격을 금할수 없었다.

추모의 그 나날 장군님의 령전에서 흘린 인민의 피눈물은 결코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장군님의 한생의 뜻과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굳은 신념과 맹세의 눈물이였다.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는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온 세계에 뚜렷이 보여준 훌륭한 계기로 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 그리워하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려는 천만군민의 백옥같은 충정에

깊이 감동되였으며 거기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구상과 념원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이 나라 천만인민의 마땅한 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려는것은 자신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과 같은 피눈물의 그 나날 우리 인민에게 수령영생의 신념을 더욱 억세게 심어주시며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뜨겁게 분출시키시여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성의 세계에 고무되여 우리 인민은 비애의 언덕에서 슬픔과 눈물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고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의 아침을 맞이한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충실성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를 가슴에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빛나게 수놓아올수 있었다.

2012년 한해동안에만도 전 인민적인 열의속에 이 땅우에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빛나는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져 세인의 경탄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충성심에 의해 금수산기념궁전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되고 주체의 최고성지가 영원한 태양의 궁전으로 완전무결하게 꾸려지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는 사업이 가장 숭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개관된 금수산태양궁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 바치신 지성의 최고정화였으며 자기 수령에 대한 천만인민의 백옥같은 충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한해에만 하여도 40여차례나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30여차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150여차의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끊임없이 커만지는 심혈과

로고, 불보다도 뜨거운 그이의 지성은 천지를 감응시키고 산천초목도 감복시키는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말그대로 백옥과 같은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기로 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때로부터 끝없는 감격에 넘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최고사령관에게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영생위업도 수령결사옹위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며 태양궁전내부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리고 궁전외부의 록지조성과 공원건설에서도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당,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들과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새 품종의 잔디를 심어 록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충성의 구슬땀을 바쳤으며 궁전내부와 외부공사에 필요한 비품들과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가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깨끗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이 깃들어있는 후방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공사

장에 보내줌으로써 공사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한 감동적인 미풍이 수많이 꽃펴났다.

참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의 영생홀과 립상홀로부터 하나하나의 시설물들과 비품들, 한포기의 잔디와 한그루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고결한 충정과 지극한 정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단순한 건축예술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수령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대하처럼 흐르는 혁명의 성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참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는데 바쳐온 인민들과 군인들의 지성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도 울릴 그지없이 지극하고 열화같은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진실하고 억척같은것인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는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물결치고 수령과 인민이 언제나 한

데 어울려 사업과 생활에서 있었던 일, 가정사도 의논하고 기뻤던 일, 슬펐던 일도 죄다 털어놓으며 사는 대식솔의 숭고한 세계가 끊임없이 펼쳐지고있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류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성인들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여 백두산위인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따르며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과시되였을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언제나 장군님을 뵙고싶어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 풀리게 되였다.

인민의 마음속에 빛나는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상과 나라의 방방곡곡에 건립된 영생탑에도,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의 제정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을 영생위업실현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 기치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의 필승불패성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의 발현이였다.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데 대하여 엄숙히 선포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과 더불어 국방위원회 위원장직함은 그이의 존함과만 결부된다는것을 새로 법화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천만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되였다.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 천만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와 영웅칭호,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삼가 수여해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자자손손 빛내이기 위해 그이의 불멸의 존함과 태양상을 모신 **김정일**훈장, **김정일**상과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

을 공화국의 최고훈장, 최고상으로, 조선청년들, 소년들의 최고상으로 새로 제정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태양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총화한것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뜻깊은 태양절경축 열병식장의 연단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힘찬 구령은 위대한 태양기들을 높이 모시고 새로운 승리에로 나아가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였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수령님과 장군님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한없이 매혹된 우리 인민은 그이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이를 단결의 중심으로 하여 천겹, 만겹의 성새가 되였으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그 길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특대사변을 안아온 우리 인민들이였다.

뜻깊은 2012년의 하루하루를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빛나는 화폭들로 새겨놓은것처럼 우리 인민은 한해 또 한해 10년세월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그이의 전사, 제자의 본분을 다해왔다.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바로 여기에 오늘도 천만자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의 숭고한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 폭포소식 아뢰면 또 오실가
장군님 목메여 부르는 온 나라 아들딸들
오늘도 사무친 그리움 아 끝이 없네
…

끝없는 그리움의 노래를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르며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만을 그리며 살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지나온 10년세월은 매일, 매 순간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이어져온 정의 세월이였다.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은 결코 지나간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억만이 아니며 받아안은 정과 사랑에 대한 못잊을 추억만이 아니였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결이였다. 언제나

어느때나 만사람의 심장속에 피방울마냥 맥동치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삶의 활력소였고 조국의 진보와 번영의 힘있는 원동력이였다.

오늘도 장군님 지나가실 길을 씁니다. …

이른새벽이면 령길에 오르는 자강땅 구봉령일가의 진정의 이 목소리, 매일과 같이 온 가족이 떨쳐나 그이께서 금시라도 령길을 다녀가실것만 같아 온넋으로 쓰다듬으며 순결한 그 마음 보석으로, 비단필로 수놓아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리움이 바로 우리 인민의 고결한 량심이고 의리이다.

장군님은 바로 인민의 이 그리움속에 영생하고계신다.

불타는 가슴마다 뜨겁게 안고 사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이야말로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로 살게 하는 꺼질줄 모르는 충성의 불길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만난을 이겨내며 승리해가는 위대한 인민의 군상들이 력력히 어려온다.

세찬 격랑도 맞받아나가 황금해의 새 력사, 세인을 놀래우는 어로신화를 창조해낸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 70일전투의 나날 붕락된 갱속에 갇혔어도 동발목에 신념의 글발을 새기며 생산을 멈추지 않던 불사신의 전투원들,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힘으로 세계의 하늘높이 람홍색공화국기를 떠올리며 장중한 애국가의 선률속에 눈굽을 적시던

미더운 체육인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대로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를 거연히 일떠세우고 원수님을 모시고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을 펼치며 용암마냥 쏟아져나오는 격정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목메여 부른 영웅청년들의 심장마다에 가득 차넘친것은 다름아닌 그리움의 힘이였다.

그 무한한 인민의 힘이 그대로 천하를 뒤흔든 수소탄의 폭음으로, 민족사적대업을 성취한 주체탄들의 장쾌한 뢰성으로, 우주에 주체조선의 비행운을 자랑스럽게 아로새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거대한 추진력으로 분출하였던것이다.

장군님을 천년만년 모시고 따라야 인민이 살고 후손만대 복락한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10년의 체험속에 더욱 굳건히 간직한 신념이고 삶의 좌우명이다.

언제나 인민의 심장속에 어버이에 대한 정과 그리움의 피줄기를 강철의 혈맥으로 이어주시며 장군님의 뜻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지금도 못잊을 하나의 화폭이 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온 나라가 전승의 날인듯 환희로 설레이던 그날 향기그윽한 꽃다발 정

히 안으시고 한계단 또 한계단 층계를 밟으시며 만수대언덕으로 오르시던 우리 원수님.

세계를 뒤흔든 대경사의 소식을 우리 장군님께 절절히 아뢰시며 뜨거운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는 원수님의 그 숭고한 모습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 살며 투쟁한다는것은 과연 어떤것인가를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준 불멸의 화폭이였다.

그렇듯 숭고한 그리움을 안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인민들과 함께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유훈관철,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심장속에 그어주신 주체위업계승의 직선주로이다.

오늘도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는 일군들에게 오늘 우리앞에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장군님의 혁명유산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며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고, 이런 때 순간이라도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으면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없다고 하시며 피눈물의 언덕에서 전체 인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는 우리 인민이다.

천만인민을 유훈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이 땅우에

어버이장군님의 영생을 살아높뛰는 숨결로 만대에 무궁토록 고동치게 하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국건설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대공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절대로 덮어둘수 없으며 조건과 환경이 엄혹하다고 해도 추호도 미룰수 없는 지상의 요구인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천만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현대적으로 개건된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시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부터 찾으시였다.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의 력사를 보여주는 한상한상의 사진문헌들을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하시던 그날의 말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

감,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철의 진리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것을 심장에 쪼아박고 투쟁하여야 한다. …

인민은 그이의 말씀속에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신념의 불길을 보았다.

우리의 투쟁과 생활의 모든 진리, 이룩할 승리의 모든 담보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있다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 인민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이 땅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활짝 꽃피우고 장군님의 기쁨으로 온 나라 강산을 가득 채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실천해나가는 천만인민의 불굴의 기상이 나래쳤다.

유훈관철의 길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이 있다는 철석의 의지에 떠받들려 평양기초식품공장, 류원신발공장,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하여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였고 창전거리를 비롯한 시대적기념비들이 일떠설수 있었으며 황금해, 황금벌, 황금산의 새 력사창조와 같은 경이적인 사변들과 더불어 장군님께서 뿌리신 씨앗들이 만복의 열매로 주렁지는 자랑찬 현실이 끊임없이 펼쳐질수 있었다.

영생은 결코 전기의 갈피나 기념비의 글발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과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위대한 인민의 뜨거운 진정과 충의에 의해 펼쳐지는 세기적인 변혁과 세계에 뻗치는 강국의 존엄, 희망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생활속에 그리고 눈부시게 마중오는 밝은 미래와 함께 더욱 높이 빛나는 존함으로, 더욱 뜨거운 숨결로, 더욱 강렬한 심장의 고동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것이다.

빛나는 영생은 인민의 불타는 마음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유훈관철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광명한 래일을 앞당겨가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있어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력사는 무궁토록 영원히 흐를것이다.

2. 강용한 인민의 정신력과 기상은 백배해졌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필승의 신심드높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시대를 격동시키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치였습니다.》

김 정 은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

21세기의 세번째 10년대를 보내고있는 지금 인류는 한가지 진리에 대해 공감하고있다. 그것은 자주적존엄과 대가 강한 나라와 인민만이 부강번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존엄이다.

존엄을 떠난 나라와 민족의 진보와 발전이란 한갖 허상에 불과한것이며 존엄이 있고서야 강대한 나라, 번영하는 민족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야말로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고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제일생명인것이다.

존엄은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지닐수 있는것이 아니며 오직 힘으로써만 지킬수 있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마구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불법무도한 강권과 전횡이 날로 우심해지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지구상에는 언어도 피부색도, 정견과 신앙도 서로 다른 수많은 크고작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고있지만 외부세계에

자기 할 소리를 다하며 자기식대로 당당하게, 존엄높게 사는 인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물음앞에서 세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나라와 인민이 있거니 그것은 다름아닌 그 어떤 도전도 단호히 쳐물리칠수 있는 최강의 힘을 지니고 자주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사회주의조선,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위대한 조선인민이다.

세상사람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뜻깊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하시던 백두령장의 력사적선언을.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

세계를 《**김정은**충격》으로 진감시켰던 그날의 선언과 더불어 10년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였고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긍지는 최상의 경

지에 올라섰다.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오는 나날에 우리 인민은 자주적대를 꿋꿋이 견지하고 불굴의 의지와 투쟁으로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켜내며 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여왔다.

자주는 인간이 자신을 깨닫게 하는 운명의 홰불이고 위대한 강국, 위대한 인민을 낳는 창조와 변혁의 대명사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현시기 자주권을 지켜내고 강국의 인민으로서 긍지높고 떳떳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은 더욱 강렬한것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수 있습니다.》

인류가 리상으로 내세우고 가고싶어하는 자주의 길로 간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길로 가자면 내외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칠수 있는 투철한 자주정신과 강인담대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자주정신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 주체조선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워주시여 자주적인민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최상의 경지에서 꽃피워주신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고 자주와 정의를 교살하려고 하는 조건에서 막강한 국가방위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떤 나라도 오늘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하에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힘이 안받침되지 못한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요구는 애달픈 하소연이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방위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누구도 감히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만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춤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급부상시키시는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지난 10년세월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 굴복시키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중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자위적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물리적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을 더욱 백배해주시였고 한다면 하는 주체조선의 기질과 본

때를 남김없이 과시하시였다.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지키는 길, 국가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길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기어이 가야 할 혁명의 길이기에 이른새벽과 깊은 밤 그이께서 걸으신 험한 령길과 바다길, 철야강행군은 정녕 눈물없이는 더듬을수 없다.

우리는 죽으나사나 성공시켜야 한다, 백번 실패하면 백번 다시 일어나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의 탄도탄에는 우리 당의 권위,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이 실려있다고,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시던 그이의 절절한 호소.

어느 순간에 실수가 없다고 장담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시험장에서 조립과 기동과정은 물론 발사현장에까지 한몸을 내대시고 과학자들과 함께 계시던 백두령장의 강인담대한 그 모습.

하루빨리 그 누구도 숫볼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억척으로 다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국방과학자, 기술자, 군수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일어났다.

주체탄개발의 제일 어려웠던 때에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신념의 구호를 국방과학자들과 전투원들은 물론 우리 인민모두가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안고 결사의 전투를 벌리며 우리 식의 위력한 무기체계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령도자의 발걸음따라 천만이 산악같이 일떠선 단결의 힘이 있었기에 공화국의 지위와 힘이 우주와 대륙에 뻗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우리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사변들을 창조하였다.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온 한해동안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풀어준 대경사의 날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3월에 있은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의 성공, 5월에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미싸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 그 흥분의 열도가 식기도 전에 7월에는 련발사격을 하듯 한달에 두번씩이나 쏴올린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의 대성공, 9월에는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11월대사변》으로 력사에 기록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시험발사의 성공.

아직 세계가 알지 못한 눈부신 발전속도로 비약하여 마침내 민족사적대업을 성취하는 력사의 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하늘에 닿았다.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였던 적대세력들은 불과 몇해 안되는 사이에 주체조선이 그렇게도 빨리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싸일까지 보유한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 말그대로 상상도 못했던 현실

앞에 경악을 하였다.

지난 시기 핵을 보유하고 강국의 지위에 오르려고 군사력 강화에 힘을 넣었다가 유일초대국의 제재와 군사적위협공갈에 못이겨 전쟁억제력을 스스로 허물고 지어 눈물겨운 전쟁의 참화까지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인민들이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른 주체조선의 위용과 담력에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참으로 절세위인의 뜻과 의지를 싣고 거대한 힘으로 만리대공을 향해 솟구쳐오른 주체탄들의 높이는 **김정은**시대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의 높이였고 그 눈부신 비행운은 조선이 지닌 자주적존엄을 세상에 자랑하는 아름다운 무지개였다.

세계를 대하는 우리 인민의 배짱은 담대해졌고 조선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에는 선망과 신비의 색채가 비끼였다.

세계의 광범한 언론들이 《**김정은**령도자께서 나라를 이끄신 몇해사이에 조선은 완전히 변모되였다. 그 전략적지위도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치고있다.》, 《조선이야말로 그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는 자주적대가 강한 나라이며 난관이 중첩되는 조건에서도 승승장구해가고있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강한 인민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평하였다.

투철한 자주정신과 담대한 배짱과 신념만이 사회주의강국

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것이다.

강국에로의 길에서 설사 천만대적이 달려든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제국주의세력의 그 어떤 발광에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강자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우리 인민은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길에서 추호의 동요와 주저를 몰랐다.

우주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특대사변들을 안아온 우리 인민의 자랑찬 성과 역시 그 뚜렷한 증시로 된다.

공화국의 첫 위성이 오른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우주개발력사는 사실상 걸음마다 막아나서는 적대세력들의 횡포하고 끈질긴 도전과 방해를 물리치며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치렬한 대결과 투쟁의 력사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12년 12월 민족의 존엄을 걸고 단행한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만방에 시위한 장엄한 선언이며 전례없는 도발과 압력으로 반공화국적대책동에 매여달리는 적대세력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린 력사적장거였다.

《광명성-3》호 2호기가 지구를 박차고 기세차게 날아오름으로써 세상사람들은 자주의 성새 주체조선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비렬한 방해책동을 어떻게 쳐갈기며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는가를 똑똑히 보았다.

그 어떤 방식의 제재도, 동결도 모두 허망한짓이며 적대세

력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조선은 제갈길을 가고 제 할바를 다한다는것을 《광명성》은 우주에 새겨놓았다.

당시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미싸일》론자들의 랑설을 산산쪼각내며 우주에 날아오른 공화국의 위성을 통해 짚어보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북의 진정한 힘을 아직 모른다는것이다. 이 시각도 오만한 나라들이 꾸며대는 구설수의 요점은 경제생활이 어려운데 왜 위성을 쏘느냐이다. 하다면 북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미 그들은 백번 허리띠를 졸라매도 위성제작 및 발사국이 되려는 의지를 꺾지 않겠다고 했었다. 위성과 바꾼 한순간의 만족한 생활로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과 약소민족의 설음을 절대로 씻어내지 못한다는것이 그들의 잠재의식이다.》

나라의 자주적존엄을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대가 얼마나 투철한가 하는것은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이후 첨예하게 벌어진 치렬한 대결전에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문제삼아 포악한 적대적조치들로 일관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며 비렬하고도 너절한 수법에 매달렸다.

조성된 사태는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있는자들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물리적대응으로 결판내야 하며 자기의 자주권은 오직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앞에서,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광명한 미래로 나가려는 우리의 장엄한 전진에 대한 극악한 도전앞에서 천만인민은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절세위인의 이 열렬한 호소를 받들어 우리 인민모두는 적대세력들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 나날 미더운 우주개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손길아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2016년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력사적사변을 안아왔다.

단 몇차례의 시험위성발사에 이어 지구관측위성에로의 도약, 경사궤도위성으로부터 극궤도위성에로의 급속한 발전, 그것은 우리 인민의 투철한 자주정신의 일대 과시, 무궁한 창조적힘의 거대한 분출이였다.

조선이 우주과학기술을 소유한 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는것을 세계앞에 당당히 선언한 그 시각 위성과학자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존엄높은 인민으로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가 눈물겹게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광명성-4》호 위성발사는 보통때와 그 의미가 달랐다.

당시로 말하면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적대세력들의 발악의 도수가 한계를 넘어서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무겁게 감돌던 최악의 시기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걸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위성발사의 대장거를 단행하시였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신심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주정복의 상상봉에로 떠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세심한 손길이 있었기에 위성개발자들은 위성발사에는 불리하다는 사나운 추위속에서도 끝끝내 승리의 뢰성을 터뜨리며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우주만리에 떨칠수 있었다.

정녕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 중중첩첩의 위험이 드리운 길이지만 자주적신념과 배짱으로 톺아오른 령마루에서 맞는 영광은 그처럼 눈부신것이다.

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는 기술이 아무리 높은 나라라도 자주적대가 없이는 도저히 실현할수 없는 일이다, 조선의 성공적인 위성발사

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우주개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산모범으로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이 경이적현실을 통해서 우리 인민모두는 투철한 자주정신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더없는 긍지와 영광을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위대한 인민의 기상을 더욱 떨쳐갈 결의에 충만되였다.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생명처럼 귀중히 간직한 우리 인민이기에 적대세력들이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올 때마다 천지를 진감하는 보복성전의 뢰성으로 무자비하게 쳐갈기였다.

그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지나온 10년세월은 우리를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 총포성없는 전쟁의 련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나날 일촉즉발의 위기사태로 하여 전 세계가 초긴장상태로 조선을 주시했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그때마다 우리 인민은 불타는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를 활화산마냥 폭발시키며 판가리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주적근위병의 존엄을 지켜냈다.

2015년 8월사태로 교전직전에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하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기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망동으로 우리 조국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왔던 준엄한 시각 이 땅은 말그대로 복수의 열기로 끓어번지였다.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원쑤들을 모조리 불도가니속에 쓸어넣을 멸적의 의지로 만장약된 인민군장병들과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틀어쥐고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는 로농적위군 대원들의 멸적의 기상과 투쟁기풍은 하늘에 닿았다.

조국수호의 성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단결된 무적필승의 위대한 힘앞에 도발자들은 전률하였고 마침내는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

그해 8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의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영용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드팀없는 조국사수와 혁명보위정신,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의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목숨바쳐 사수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뜨거운 조국애에 의하여 우리 조국앞에 닥쳐왔던 위기가 우리의 발밑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위험천만한 사태는 평정되였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참으로 전선과 후방,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이 한마음한뜻으로 조국수호전에 과감하게 떨쳐나선 이런 전 국가적, 전 인민적단결의 위력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2016년 2월 긴장한 정세하에서 벌어졌던 70일전투의 나날에 발휘된 조국수호정신 역시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투철한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에 얼혼이 빠진 적대세력들은 유엔무대에서 히스테리적인 《제재결의》채택놀음을 벌리는가 하면 핵잠수함과 스텔스전투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동원하여 발광적인 군사적압살책동을 감행해나섰고 심지어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을 떠들며 《체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 야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단호한 의지가 담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이 발표되였다.

중대성명발표후 이틀동안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고 온 나라가 원쑤격멸의 노도찬 기상으로 끓어번지였다.

핵을 탁구공만하게 만들어달라, 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침략자가 있는 그 어디든 기어이 가서 피의 원한을 풀어야겠다던 수도의 한 전쟁로병의 웨침, 목숨 같은건 아깝지 않다, 빨리, 하루빨리 결전의 시각이 오기를 기다린다던 황철의 쇠물녀인들의 토로, 나는 두다리가 없다, 이 삼륜차에 핵폭탄을 실어달라, 손이 잘리우면 이발로 바퀴를 돌려서라도 원쑤들의 소굴에 기어이 뚫고들어가겠다고 증오의 불을 토하던 한 영예군인청년의 비장한 모습 등에서 하늘에 닿았던 우리 인민의 보복의지를 력력히 알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렬한 애국충정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조국보위에 탄원한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에게 친히 감사문을 보내주시였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려보려는 적들의 극악무도한 발광에 활화산같은 분노를 폭발시키며 무자비한 천벌을 안기는 성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은 령도자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정의를 사수함이라면 피어린 전쟁도 죽음도 불사하며 원쑤들을 요정내고야마는 위대한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의 과시로 되였다.

이러한 놀라운 현실을 목격하면서 세계는 우리 인민의 강한 민족자주정신과 기개야말로 몇십, 몇백개의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비할바없는 최강의 힘이라는데 대해 충격을 금할수 없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처럼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제대결전에서 련전쾌승을 떨쳐온 인민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민이 있는한 주체조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한다는것은 력사가 증명한 철의 진리이다.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시고 자주로 존엄높고 강위력한 천하제일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나가는 위대한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끝이 없다.

지나온 10년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자주적대를 확고히 고수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떨쳐나갈것이다.

자력자강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절세위인의 세심한 손길과 더불어 사상정신적으로 몰라보게 성장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억세게 자리잡은 신념이 있다.

자력갱생으로 끝까지 승리하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든 이 신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해나가는것이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지난 10년세월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의 길만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았다.

자력갱생은 자존과 자강의 생명선이고 발전과 번영의 강력한 무기이며 공화국의 고유한 투쟁방식, 전진방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 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지난 수십년간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을 헤쳐오는 나날에 이룩한 그 모든 승리는 다 자력갱생의 고귀한 결실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다.

저 멀리 항일의 혈전장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과 더불어 지나온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는 말그대로 자력갱생으로 강해지고 자력갱생으로 승리하여온 위대한 력사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기 힘을 믿고 굴함없이 싸웠기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으며 제힘으로 민주의 새 나라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전후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인민이 외세의 압력에도 굴함없이 자력의 원칙을 꿋꿋이 지키였기에 폐허우에서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추켜들고 형언할수 없는 고난의 언덕을 넘어왔으며 제힘으로 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쌓았고 그 길에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을 안아왔다.

자력갱생이야말로 국가발전의 거대한 추동력이며 번영의 보검, 백승의 기치라는것을 장구한 투쟁의 실천을 통해 체득한 우리 인민인것이다.

그러한 인민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자력갱생을 영원한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쥔 자

력자강의 제일강자들로 위대한 격변의 시대를 연 세대로 더욱 성장하게 되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전대미문의 격난속에서도 온 나라 인민을 자력갱생대진군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사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참으로 준엄한 난국이 중중첩첩 앞을 가로막았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민족대국상과 때를 같이하여 사회주의위업의 거세찬 흐름을 막아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 겹쌓이는 시련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는 철의 신념을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만이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이며 우리에게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철리를 천만의 가슴마다에 깊이깊이 새겨주시였다.

주체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자력갱생의 공격전,

전 인민적인 결사전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셔버릴 절세위인의 필승의 기상이 구절구절에 맥박치는 시대의 격문이였고 진격의 포성이였다. 그 호소문은 천만대중의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마식령스키장건설장만이 아닌 새로운 승리를 향한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될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뜻깊은 당대회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과 그리고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것은 바로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갱생의 길이라는것이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연단에서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말씀을 오늘도 우리 인민은 생생히 새겨두고있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

이렇듯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투철한 신념으로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이 땅우에 자력갱생창조대전의 불길이 활화산같이 타번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인민이 있는한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는 신념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덩이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자력갱생의 위력을 천백배로 분출시키시였다.

삼복철의 무더위, 한겨울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천만인민의 심장마다에 자력갱생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자력자강을 생명으로, 생존방식으로 체질화한 영웅적인 인민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변혁과 번영의 새시대에 자강력의 강자들로,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자랑높은 강원도인민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사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더구나 공업토대도 미약한 강원도에서 최근년간 세상을 놀래우는 변이 련이어 일어나고 오늘의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이 창조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온 나라가 형언할수 없는 시련을 이겨내며 새로운 주체100

년대의 강국건설진군길을 다그치고있던 시기 강원도인민들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강국건설의 대진군에서 승리자가 되려는 하나의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강원도인민들은 전투장들마다에서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원산군민발전소의 완공,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원산육아원, 애육원, 원산초등학원, 중등학원의 개건 및 신설, 강원도12월6일소년단야영소, 도예술극장, 원산구두공장, 갈마식료공장, 룡담세멘트공장, 문천강철공장, 안변요업공장,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원산가구공장 등의 현대화, 원산제염소, 원산유리병공장 등 여러 공장들에서의 생산활성화, 앞으로 몇년안에 전기가 남아돌아가는 도로 전변시킬 대담한 작전밑에 진행하는 여러개의 발전소건설, 도양묘장, 도수산사업소, 양로원건설, 원산시 송천남새전문농장의 개건…

강원도에서는 전기와 물, 살림집과 땔감문제해결에서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자력갱생기지들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으며 그 어디서나 생산적앙양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였고 그것은 그대로 지난 시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열린 해에 끝끝내 위대한 장군님

의 애국헌신의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원산군민발전소를 기어이 완공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원산군민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뜨겁게 깃든 발전소로서 강원도인민들은 어떻게 해서나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건설을 완공하기 위해 불사조마냥 떨쳐일어났다.

공사량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수십㎞의 물길굴뚫기와 근 200만㎥의 언제쌓기, 수천m의 압력철관로공사와 발전기실건축공사 및 설비조립공사, 전력망계통공사, 발전소종업원들을 위한 1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는소리를 하거나 우를 쳐다본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자체의 기술력량, 자기 손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다.

강원도인민들은 공사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추기와 양수기들을 만들어낼 결심밑에 여러 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끝내 완성하여 리용하였으며 세멘트와 강재, 레루, 각종 륜전기재부속품을 비롯한 건설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완공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갔다.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언제단면최

량화공법, 가배수로에 의한 큰물처리공법, 콩크리트타입량을 40%이상 줄인 새로운 무넘이언제공법 등 10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연구도입하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였다. 또한 혼압물충진에 쓰이는 급결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여 흐름속도가 빠른 물속에서도 전반적인 갱피복공사를 일정대로 다그쳤으며 중앙이나 다른 도의 도움이 없이는 할수 없다고 하던 압력철관로공사와 대형발전기설치도 도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해제꼈다.

강원도인민들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다시금 뼈에 새기였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도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강원도인민들이 얼마나 대견하시였으면 발전소를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슴배여있는 발전소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여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

자로,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해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자력으로 비약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으로 내세워진 강원도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활을 꾸려나가겠다는 강한 자존심과 배짱, 기존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과학기술을 앞세워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실천력,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헌신분투하는 견인불발의 의지를 지니고 투쟁해나갈 때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강원도정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의 탄생과 더불어 온 나라 인민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였으며 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당중앙의 전투적구호는 전인민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었으며 사람들모두가 강원도인민들처럼 자력갱생의 투사가 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과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써 풀어나가면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이 남김없이 과시되는 속에 주체철,

주체비료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땅우에서는 우리가 만든 자동차와 뜨락또르,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내달리고있으며 하늘에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의 산물인 경비행기들이 날아예는 환희로운 현실이 펼쳐졌다. 나라의 곳곳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서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져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게 하여주었다.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붕괴시키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가증되였지만 천만인민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자체의 힘을 최대로 증대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전진을 안아올수 있었으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는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올수 있었다.

당 제7차대회이후 자체의 힘을 부단히 증대시키기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장기간의 극악한 제재봉쇄와 혹심한 재난속에서 자력으로 이루어낸것으로 하여 보다 큰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을 자존과 자강의 생명선으로, 강력한 발전동력으로 틀어쥐고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헤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전을 벌려 이룩한 성과들은 평온한 시기의 경제건설수자에 비할수 없는 몇십배의 강력한 분발력, 발전력의 결실이였다.

난관을 뚫고 축적한 자강의 억센 힘이 있기에 사회주의강

국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은 더 방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더 기세차게 가속화될수 있었다.

이 자랑찬 현실을 통해 자력갱생을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전체 인민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내세워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철석의 신념, 탁월한 령도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으며 자강력의 제일강자들의 위력이 어떤것인가를 세상사람들은 똑똑히 알게 되였다.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 새로운 발전의 목표를 내세우고 난국을 맞받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고있다.

다 아는것처럼 최근 2~3년간은 다른 그 어느때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도전과 난관이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공화국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려는 적대세력들의 음흉한 압살책동과 파괴적인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련이은 자연재해에다 전 인류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등 우리 인민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참으로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9년 12월에 있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

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할데 대하여 천명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이라고, 우리가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을 다시금 가다듬으며 분발해나섰다.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농사에서 전례없는 대풍을 마련하고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공사의 결속,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의 완공과 같은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커다란 승리적전진을 이룩하였다.

년초부터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과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앙과 같은 예상치 않았던 도전과 난관앞에서 우리 인민은 비관에 빠져 남을 쳐다본것이 아니라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국내의 연구단위, 개발단위, 생산단위들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줄

기차게 벌렸다.

안석간석지건설의 완공, 개건현대화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횡포한 자연의 광란으로 여지없이 파괴되였던 대청리를 비롯한 피해지역들에 불과 몇달사이에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선경의 별천지가 펼쳐지는 기적도 창조되였다.

그 나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인 강원도사람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이천군민발전소, 문천탄산소다공장, 안변린비료공장, 원산시무궤도전차사업소, 원산양어사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대상들을 일떠세워 전진발전의 토대를 마련해나갔다.

더우기 사상초유의 재난과 재해속에서 전개된 80일전투는 자력갱생을 체질화, 습벽화한 우리 인민만이 실행할수 있었고 또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은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에서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 인민적인 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고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전략을 밝혀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

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당 제8차대회이후 소집된 중요회의들과 뜻깊은 계기들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이야말로 필승의 무기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더더욱 뼈속깊이 새겨안았다.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립증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공화국의 인민들은 지난해에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증폭시켜 2021년을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였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헤치며 결사적으로 벌린 우리 인민의 투쟁으로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고 4년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삼지연시꾸리기가 3단계공사로서 마무리됨으로써 백두성지 삼지연땅이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완전히 전변되였다.

아직 어렵고 부족한것은 적지 않지만 5개년계획의 관건적인 첫해 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농업부문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였고 수많은 단위들이 자체의 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진행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한것을 비롯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는 자랑찬 결실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자력자강을 생명선으로 틀어쥔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의 진군보폭을 더욱 크게 내짚고있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이 세상 제일로 위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시련과 곤난속에서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쇠소리나는 자력갱생신념의 강자, 영웅적인민이 있기에 강국의 미래는 그처럼 확정적인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다

참으로 자랑찬 시대, 영광의 시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바로 여기에 자존과 번영의 기상 떨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이 어려있고 겹쌓이는 만난시련을 헤치며 투쟁과 전진의 한길,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10년의 려정이 응축되여있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격동의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한 인민의 영광과 긍지가 하늘에 닿았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천만인민은 천하제일위인을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승리와 번영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벅차게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당이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

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지나온 10년세월 가장 숭고한 애국리념, 애국의지를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신을 불태워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의 날과 달들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라는 이 부름에 다 비끼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우리 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입니다.》

지금도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의 드팀없는 신념을 담아하시던 그 말씀이.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이다.

이렇듯 웅대한 뜻과 리상을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천하제일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향하

여 줄달음쳐올수 있었다.

강국건설위업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남이 이루어주는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가의 참된 강성과 번영은 오직 가장 투철한 민족자존의 정신과 자력자강의 위력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자존의 투철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으며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절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버릴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라는것을 삶과 투쟁의 진리로 뼈속깊이 새긴 우리 인민이다.

그이의 확고부동한 자주의 신념, 자존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굴할줄 모르는 신념의 기둥으로 간직되였고 억센 추동력이 되여 천만대오를 자력번영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로 힘차게 떠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화같은 조국애와 숭고한 인민관이 구현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신것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우에 빛나는 기치를 마련하신 또 하나의 사변이였다.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진 **김정은**시대에 공화국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강국념원을 실현하려는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온갖 시련과 도전을 맞받아나가며 투쟁함으로써 조선을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당당한 존엄과 막강한 국력으로 그 이름 빛나는 공화국의 오늘을 통해 이 땅의 주인들이 가슴뿌듯이 새겨안은 자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현 세계에서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을 견줄만한 나라는 없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커다란 긍지인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힘의 강약과 리기적목적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좌우되고 폭제와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국력강화는 국가존립과 발전의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도 믿음직하게 구축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자신의 창조적지혜와 영웅적투쟁으로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아닐수 없다.

강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공화국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강국인민의 자존심과 불굴의 정신력을 백배해주는 자양분으로, 주체조선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인민들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제시하시고 그와 관련한 독창적인 사상들을 밝혀주신것이야말로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에 맞게 더욱 분발하여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돌격전에 전민이 매진해나가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천만의 심장속에 자존과 번영의 철리를 신념으로 새겨주시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여 온 나라를 성스러운 애국투쟁, 창조투쟁으로 끓어번지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의 손길을 따라 이 땅우에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제도, 우리 정권,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신념이 맥박치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려는 불같은 열정이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분출하였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라고 당당히 자부하는것은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을 세계에 떨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비상히 승화되고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위상을 급격히 상승시킨 승리가 위대하기때문이다.

정말이지 지나온 우리 조국의 10년, 그것은 실로 헐치 않은 세월이였다.

그 첫시작부터 무수한 격난을 뚫고헤쳐야 했던 이 길,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땅에는 얼마나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는가.

우리 인민은 2012년의 첫 진군길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잊지 않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은 모든 사업의 절대적기준이며 인민의 리익실현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으시였다.

그이의 심중에는 인민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는 나라,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국가야말로 진정한 강국이라는 굳은 믿음이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우리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실시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당과 국가활동전반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시고 모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해나가도록 하시여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우리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고착되게 하여주시였다.

지난 10년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공식보도된것만 해도 천수백건에 달한다는 사실 하나만을 놓고서도 그이께서 인민의 기쁨과 행복, 인민의 안녕과 무궁한 미래를 위해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신데 대해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정치리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을 따라 우리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행복의 별천지, 사회주의선경들이 솟아올라 사회주의

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려퍼졌으니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 우리 국가의 존엄을 과시하는 그 기적과 변혁들에는 그이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가 눈물겹게 비껴있는것이다.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강력한 힘이자 곧 국가의 존엄이고 지위이다.

결코 승평세계가 아닌 오늘의 세계에서 막강한 국가방위력을 갖추는것이야말로 최대의 중대사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숭고한 사명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나라를 빛내이고 내 조국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사생결단의 길을 헤쳐오시였다.

깊은 밤, 이른새벽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수백리길을 달리시고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서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 불패의 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리시려는 절세위인의 결심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지난 10년세월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상상을 초월한것이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절세위인의 령도아래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최강의 힘을 다지기 위하여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기존상식으로는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자위적국방력

강화의 민족사적대업을 단 몇해사이에 빛나게 실현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함으로써 대국들이 우리 국가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가 종식되고 우리 인민은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수 있게 되였다.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과 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은 우리의 존엄,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였다. 열병식을 보면서 강국의 주인된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휘황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은 더욱 백배해졌다.

정녕 탁월한 령도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고 혹독한 격난이 겹쳐드는 속에서도 인민의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빛나고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참모습이 있는것이다.

장구한 인류력사에 비해볼 때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10년,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이 땅에 펼쳐진 가슴벅찬 새시대의 숨결을 절감하며 인민은 마음속진정을 터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주체조선을 반드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으로 건설하실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에 의해 이 땅우에 장엄히 밝아온것이라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여나가려는 천만인민의 열의와 의지는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강국의 지위에 맞는, 높이에 맞는 국풍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열풍이 날로 고조되고있는것만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국풍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서 관건적인 작용을 한다. 훌륭하고도 우수한 국풍이 차넘치는 나라는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해나가기 위한 기풍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주체조선특유의 국풍인 자력갱생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루어내며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치로, 비약의 원동력으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나선 과업을 풀어나가는 과학기술중시관점과 일본새를 국풍으로 철저히 확립해나가려는 열의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조국보위를 가장 성스러운 제일국사로 간주하는 전 인민적인 애국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밑에 전체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난국을 뚫고나가고 다같이 전진해나가는것을 비롯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우수한 국풍들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인민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국가상징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더없이 사랑하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날로 승화되는 사실들을 통해서도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고취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잘 알수 있다.

2019년 새해 첫아침에 힘차게 울려퍼진 시대의 명곡 《우리의 국기》의 장엄한 선률과 더불어 국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자부심과 사랑의 감정은 더한층 강렬해졌다.

…
영광찬 공화국의 력사를 길이 전하며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붓겨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70여년의 장구한 세월 붉은별 빛나는 람홍색기폭과 운명을 함께 해온 인민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공화국기를 자신들의 존엄으로, 생명으로, 찬란한 미래로 더욱 소중히 새겨안았다.

국가적인 명절들과 기념일들마다 엄숙히 거행되고있는 국기게양식에서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기발을 향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사회주의조국의 위대함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열렬한 사상감정을 가다듬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북에서 국기인 람홍색공화국기는 **김정은**시대의 명실상부한 북의 국가상징으로, 가장 중심적이고 우선시되는 상징물로 자리잡고있다.》, 《국기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국기게양식을 엄숙하게 거행할뿐 아니라 국기를 도안으로 한 운동복, 샤쯔 등도 만들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도록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국기뿐 아니라 국가와 국수인 소나무, 국화인 목란을 비롯하여 국가상징들을 사랑하는 기풍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강국의 지위에 맞는 새로운 국풍들을 창조해나가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가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과 투쟁열의는 분발승화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헌신분투해가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국력은 날로 더욱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장구한 발전행로에서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

은 시대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으로 굳게 뭉쳐 우리 공화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려는 천만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국가의 권위이자 인민의 긍지이며 영예이다. 우리 인민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모습에서 강국의 공민된 크나큰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힘으로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갈 철석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존엄, 이 긍지, 이 영광을 그 무엇과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자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우리 인민이 힘차게 다그쳐온 강국에로의 진군길은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며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이다.

력사의 온갖 돌풍을 이겨낸 우리 인민이지만 지나온 10년간 중중첩첩 겹쳐든 시련과 난관은 지금껏 체험하지 못했던 말그대로 전대미문의 험로역경이였다.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도제재, 사상 최대규모의 무분별한 군사적압살책동, 천인공노할 제도붕괴책동, 날강도적인 인권소동, 비렬한 내부와해책동, 여기에다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

말로는 형언할수 없는, 남들 같으면 열번은 쓰러지고 백번은 사라졌을 시련의 폭풍우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추호의 동요와 흔들림없이 력사의 생눈길을 꿋꿋이 헤쳐나가며 강국의 위용, 강의한 인민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다.

과연 무슨 힘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 전면적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내달릴수 있게 하는것인가.

위대한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바로 이것이다.

나라의 국력이자 곧 인민의 정신력이며 가장 강의한 정신력은 위대한 전통에 뿌리를 둔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드높이 발휘되고있는 위대한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근본원천은 다름아닌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장장 수십여년 조국번영의 길에서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손길아래 우리 인민은 정신력의 강자들로 자라났으며 이 땅에서는 위대한 혁명정신, 불굴의 정신력이 세차게 나래쳤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이겨내며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

군이 엄청나게 많은 적과 싸워이길수 있은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강한 정신력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필승의 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헌신성과 희생성, 이런 정신에 대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말로 통칭하고있다.

수배 혹은 수십배의 적앞에서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자신심과 백절불굴의 투지, 자기희생성을 가지고 싸웠기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적들과 맞서도 패한적이 없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영원한 혁명의 피줄기로 굳건히 이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의 심오한 뜻을 밝혀주시며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할 업적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백두의 혁명정신, 이 위대한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년대와 세기를 이으며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영웅적인민으로 력사의 갈피에 뚜렷한 장을 새길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년대마다에 승리의 기치로 빛나는 백두의 혁명정신

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와 손길아래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근본원천으로, 백승의 기치로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충격과 사변으로 격동적인 지난 10년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였다.

온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켰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백두산행은 시대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백두의 혁명정신을 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였다.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지를 통채로 뒤흔드는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고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그날에 하신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내가 오늘 또다시 백두산에 오른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인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 깊이 체득하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이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렇듯 숭고한 의도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인민군련합부대 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을 찾아 수천리 먼길도 가시여 그들을 고무격려도 해주시였고 또 언젠가는 청년들에게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믿음의 구호, 격동적인 투쟁구호도 제시해주시고 모든 청

년들이 시대의 명곡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부르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주시였던것이다.

백두산에 따뜻하고 좋은 날이 없는것도 아니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8(2019)년 12월 차디찬 강설속에 단행하신 백두산군마행군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위대한 인민을 위한 결단이였다.

자주와 정의의 길을 가로막는 폭제와 전횡이 살판치고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강국건설의 주력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날 사상정신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기에 그이께서 단행하신 백두산강행군이야말로 인민의 마음속에 필승의 신념을 벼려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혁명강의였다.

군마를 타시고 힘차게 내달리시는 그이의 담찬 기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백두에서 개척된 고귀한 전통과 정신을 후손만대 이어갈 명맥으로 다시금 새겨안았으며 눈보라폭풍 만리도 기꺼이 헤쳐갈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는 불멸의 시대어인 《백두산대학》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어진 백두에로의 행군길에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 그 얼마나 승화되였던가.

전국각지의 남녀로소가 《백두산대학》의 입학생이 되여 백

두산으로, 백두산으로 용기백배 행군해나갔다.

사나운 칼바람속에서 얼굴에 돋아오르는 성에를 쓸어문지르며 생눈길을 헤쳐나가면서, 백두산정에 올라 아득히 펼쳐진 눈덮인 밀림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의 참뜻을 심장마다에 다시금 새겨안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가장 참되고 강의한 생명력을 키워주는 인간정신의 최고정화이다. 그것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나가는 필승불패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도 오직 자기의 힘으로 시대와 력사를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간만이 지닐수 있는 숭고한 정신이며 풍모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모든것이 다 있다.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을 주는 위대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결사옹위의 정신, 맨주먹으로 폭탄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정신, 한홉의 미시가루도 천만근의 량식처럼 나누어 들며 고락을 같이하는 불같은 동지애…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선렬들이 지녔던 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뼈속깊이 새겨안으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가다듬고있다.

《백두산대학》에서 졸업이란 있을수 없으며 이 땅의 공

민이라면 누구나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백두산을 심장에 안고 살자.

이 신성한 교정에 들어섰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슴그득히 안고 가야 하며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백두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위대한 인민의 이렇듯 투철한 각오와 의지를 꺾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설사 시련의 광풍이 천지를 들부시며 몰아친대도 백두의 혁명정신을 명줄로 안고 사는 인민의 전진, 《백두산대학》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신념과 의지의 진군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것이다.

몰아치는 백두의 칼바람에 심신을 가다듬고 뼈와 살을 강쇠처럼 단련해가는 천만인민의 백두의 행군열풍은 그대로 온갖 회유와 압박공세밀에 이 땅의 모든것을 고사괴멸시키려 발악하는 적대세력들에게 내리는 또 한차례의 가장 무자비한 사상과 신념, 원칙과 정의의 선전포고가 아닐수 없다.

오늘의 세계는 하나의 심각한 교훈을 주는바 자기의 근본과 전통을 잊지 않고 자기의 리념과 선택한 길에 충실한 국가와 인민은 강자로 남아있을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거나 저버린 나라와 인민은 굴종과 좌절, 괴멸을 피할수 없다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라는 생명줄을 옥죄이고 전쟁위협론을 마구 휘두르는것의 진짜목적은 바로 그 나라와 인민의 정신

적기둥을 꺾어버리자는데 있다.

온 나라의 전체 인민이 앞을 다투어 그처럼 열정과 신심으로 가슴들먹이며 혁명정신무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눈보라 행군길에 나선 이 장엄한 화폭은 적대세력들에게 전률과 공포를 안겨준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천만인민이 자기의 위대한 령도자의 뒤를 따라 일시에 떨쳐나 전 인민적인 백두산행군길에 오르고있는것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대를 이어가야 할 혁명의 길을 뼈속깊이 되새기며 누구나 새롭게 무장하고 새롭게 태여나고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빛나는 인간의 변혁이며 인민의 성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굳게 새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로 되였으며 그 위력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

10년세월 우리 인민이 뚫고넘어온 강행돌파의 준령들이 립증해주고있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백두의 눈보라를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자욱자욱 백두의 행군길만을 순간도 헛디디지 않고 곧바로 달려온 우리 인민이였기에 세계를 거머쥐려고 날뛰는 강적도 다스리고 불가능의 역경을 도약대로 역전시키며 오로지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었다.

건설의 대번영기속에 주체조선의 새로운 비약과 불패의 국

력을 만방에 과시하며 이 땅에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기적의 시대, 문명이 한껏 꽃펴나는 비약과 번영의 시대, 모진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펼쳐졌다.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2015년에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과 눈부신 성과들을 놓고서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충만된 천만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2015년 새해의 첫아침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몸소 오르시여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 싸워나가도록 천만인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건설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찾으시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본보기들을 마련해주시고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총진격의 길에 약동하는 숨결과 무한한 활력을 부어주었다.

천만인민의 혁명적의지와 각오를 비상히 승화시키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들이 조국의 북변 백두대지의 하늘아래 첫 동네로부터 최남단 섬방어대에 이르기까지 천리방선초소들과 일터와 마을 그 어디서나 최후승리의 진군가로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칼바람을 헤치며 백두산에 오른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비롯하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찾으며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정신적량식을 받아안고 억년 드놀지 않을 신념의 억센 기둥을 가슴마다에 세웠다.

전체 인민들은 백두의 드놀지 않는 배짱과 의지로 10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 불사신처럼 싸워나갔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져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세인을 경탄시키며 련이어 일떠섰다.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건설대상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열혈청춘들의 애국충정에 떠받들려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로 백두전구에 거연히 솟아올랐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도 승리의 포성이 울렸다.

청년건설자들을 비롯한 전체 돌격대원들은 영웅적투쟁을 벌려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기초굴착과 가물막이공사를 와닥닥 끝내였으며 기본언제와 보조언제, 발전기실과 물길굴, 조압수조와 취수구조물, 방수로들을 도처에 건설하고 천수백m에 달하는 물길굴을 완공함으로써 덧없이 흐르던 청천강의 200여리구간에 10개의 계단식발전소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승리의 경축광장에 긍지높이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어 세포지구에 달려간 개척자들은 수만정보의 풀판을 조성하고 수백정보의 바람막이숲과 1만 2 600여정보의 풀판보호림, 근 2 000㎞의 방목, 운영도로를 새롭게 형성하였으며 살림집, 집짐승우리, 공공건물건설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수수천년 버림받던 황무지를 옥토로, 락원의 등판으로 천지개벽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게 하는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건설전투장마다에서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와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올랐다.

그뿐인가.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의 상징건물인 53층살림집골조공사를 불과 66일만에 끝내는 눈부신 건설속도가 창조되는가

하면 절세위인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부모없는 어린이들의 사랑의 요람인 원산육아원, 애육원과 년로자들의 훌륭한 보금자리인 평양양로원을 비롯하여 자본주의가 지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현실로 립증해주는 사랑의 결정체들이 훌륭하게 일떠서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문명개화된 멋쟁이농장도시로 전변되였고 백두대지의 삼지연지구가 사회주의선경으로,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훌륭히 변모되여갔다.

전대미문의 큰물피해를 입은 조국의 최북단 라선땅에서 창조된 기적은 또 어떠한가.

머나먼 북변땅의 피해복구전투장까지 찾으시며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천출위인의 불같은 호소따라 대건설전투가 벌어져 1 300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백학동지역을 비롯하여 라선시 선봉지구의 피해지역들이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선경마을로 천지개벽하였다.

금속, 석탄, 기계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각 부문들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성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룩되였으며 황금

해, 황금벌, 황금산의 새 력사창조와 더불어 가슴흐뭇한 풍경들이 펼쳐졌다.

참으로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할수도, 엄두낼수도 없는 이 모든 기적적인 성과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이겨내며 과감한 투쟁을 벌린 천만인민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들이였다.

우리 인민은 거창한 창조와 완강한 실천을 통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투쟁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뚫고 나아가는 위대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은 최악의 시련이 겹쌓이는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는 오늘날 더욱 강렬하게 나래치고있다.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를 자랑찬 승리와 위훈으로 빛내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실천강령을 높이 들고 긴장하고도 보람있게 투쟁해온 2021년은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지금 공화국인민들모두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더욱 억세게 가다듬으며 뜻깊은 2022년에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 기초를 닦아놓기 위한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겹쌓이는 난국을 뚫고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해나가자면 신념이 확고하고 의지가 강해야 한다.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더 백배해진 자신심과 용기를 안고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만난시련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뚫고나갈 굳은 신념과 강의한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당겨오기 위한 결사전에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위대한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3. 눈부신 창조로 영웅적인민의 위용을 떨쳐간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일떠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위훈을 창조하는 수백만 당원들과 영웅적인민이 있는한 우리는 적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능히 짓부시고 혁명의 끊임없는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습니다.》

김 정 은

거창한 창조대전의 열풍과 더불어

전례없는 기세로 조국강산이 끓고있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다음 단계의 투쟁목표를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기세가 하늘에 닿았다.

2022년의 새 승리를 확신하며 지나온 10년세월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류다른 격정으로 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결코 범상치 않은 10년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지나온 10년의 한해한해를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기적만을 창조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만을 떨쳐온 위대한 우리 인민이였다.

인공지구위성이 련이어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고 우리 식의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가는 곳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천지개벽, 천도개벽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이

땅에서는 대비약, 대혁신의 포성이 끝없이 터쳐올랐다.

우리 인민이 지난 10년세월을 기적과 번영으로 수놓아올수 있은것은 결코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늘이 주는 신비의 힘에 의거하였기때문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인민의 창조력을 굳게 믿고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총발동하여 창조의 주인으로 확고히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창조의 거장이신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은 거창한 창조대전의 당당한 주인공들로서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왔다.

사상적으로 무장되고 각성된 인민대중의 창조열의와 의지, 창조기질과 본때앞에서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도, 비렬한 내부와해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였으며 우리 조국땅우에는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비약을 창조의 주되는 방식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 땅우에 전 인민적창조대전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본때를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창조정신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모두를 창조의 거인들로 키우시며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시는 창조의 영재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한없이 소중한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제일로 내세워주시려 한생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숭고하게 받들어 창조를 열렬한 애국으로 승화시켜주시고 거창한 창조대전을 펼쳐오시였다.

아무리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여도 언제나 인민의 꿈과 리상을 끝까지 실현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창조대전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천만인민을 힘있게 추동하시여 강국에로의 힘찬 전진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전 인민적인 창조대전, 이는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엄두조차 낼수 없고 모방조차 할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의 모습, 사회주의의 모습이다.

절세위인의 령도아래 이 땅에 거세차게 일어번진 전 인민적창조대전은 그 어떤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며 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대진군이다.

남에 대한 의존심은 국력을 쇠퇴몰락시키는 사약이며 자력

갱생만이 영원한 승리이라는 력사의 교훈과 철리를 뚜렷이 새겨안은 우리 인민이기에 부닥치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뚫고나가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갔다.

그 길에서 주체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것을 창조해내였던가.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당…

주체철생산정상화의 튼튼한 궤도를 내달리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가면 주체철승리의 진면모를 볼수 있다.

주체철, 참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부름이다.

우리의 땅에 무진장한 원료로 쾅쾅 뽑아내는 조선의 철—주체철, 이는 영원한 행복의 씨앗이라는 말,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과 존엄, 빼앗을수 없는 우리의 긍지와 미래, 애국의 피와 땀, 억척의 기둥… 그 모든것이다.

주체철의 성공을 그토록 바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릴 일념을 안고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은 시련의 천만고비를 넘고넘어 마침내 주체철생산정상화의 오늘을 안아왔다.

황철이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하고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첫 쇠물을 뽑은것은 2015년 11월말이였다. 그때로부터 2년 남짓한 나날에 황철의 로동계급은 온 나라를 뒤흔든 주체철성공의 자랑찬 포성을 생산정상화의 더 큰 승리로 이어놓았으며

오늘도 주체철생산실적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여기에 오니 가슴이 확 열리고 조국의 백년대계가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황철을 찾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시대의 기수, 용감한 선구자로서 황철의 로동계급은 지난해에도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총매진할것을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하고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주체철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진군포성이 련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속에 땅밑에서 《백금》을 안아올린 지하초염수개발의 완전성공과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완성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 우리의 원료로, 우리 식의 가공방법으로 뽑은 주체당을 비롯하여 자랑찬 성과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우리식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한 평양곡산공장의 경험은 많은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공장에서는 우리의 원료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완전히 우리의것으로 일관시켜놓았는데 생산설비도 우리의것, 분석설비도 우리의것, 효소배양기질과 기술도 우리의것, 정보체계도 우리의것이다.

백합과자콘베아를 비롯한 각종 콘베아들과 크고 육중한 가마들과 탕크들, 착유기 등 수십종에 100여대의 기계설비들을

국가설계기관이나 이름난 나라의 기계공장도 아닌 공장자체의 힘으로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공장의 창조본때가 어떤것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보다 자랑스러운것은 자기 힘과 기술로써 현대화의 무수한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 공장의 모든 성원들이 자강력의 강자로, 창조의 능수들로 몰라보게 성장하였다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찾아주시여 이 공장을 두고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본보기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성과의 비결에 대해 평양곡산공장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다만 당정책의 구절구절을 현실로 옮겨놓았을뿐입니다. 온 나라가 배워야 할 국산화의 위대한 교과서, 우리식 현대화의 교본을 쓰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너무도 옳은 말이다.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이번 현대화에서 기본은 국산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이라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뚜렷한 목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기어이 자력으로 강국을 일떠세워야 하며 우리 힘으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강자의

자존심과 배짱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강력,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한 창조대전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새로운 영웅신화가 창조된 어랑천발전소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랑천발전소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관심하시고 마음을 쓰신 건설대상이였지만 일군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팔향언제만 해도 10여년이 훨씬 지나도록 공사의 70%밖에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몇해전 폭열강행군의 멀고 험한 길을 이어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인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자고 하시며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와닥닥 해제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때처럼 온 나라가 들썩하게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에 어랑천용사들은 뜨거운 심장의 열기로 화답해나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당중앙이 정해준 목표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강용한 기상이 어랑천전역에 나래쳤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의 상징인 거대한 수력구조물인 팔향언제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불과 몇달사이에 10여㎙ 더 올라서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팔향언제건설을 완공하려면 10여만㎥의 골재가 더 있어야 하였는데 대형화물자동차로 1만 6 000대분에 달하는 막대한 량의 골재를 도안의 인민들은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통이 큰 작전으로 기어이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9년 3월에 들어서면서 어랑천전역 용사들의 용감성은 최고에 달하였는데 팔향언제건설장에서 3월부터 매일 평균 1 000여㎥, 한달에 3만㎥에 달하는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할 경이적인 목표를 세워 만사람을 놀래웠으며 첫날 계획부터 철저하게 수행하는것으로써 그 높은 목표가 공상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보답할 한마음으로 건설자들과 함경북도인민들은 어랑천전역에서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새로운 영웅신화를 아로새기며 수십만㎥의 방대한 혼합물타입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으로써 마침내 만년대계의 언제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준공의 환희를 맞이하였다.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가 완공된것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력사의 가장 엄혹한 도전을 과감하게 짓부시며 전진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위용과 창조의 강자들로 자라난 위대한 인민의 기상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되였다.

조국의 날바다에 기적의 창조물을 안아올린 고암—답촌철길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창조는 또 어떠한가.

2018년 5월 동해지구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고암－답촌철길 개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의 첫 해상철길, 결코 그 길이나 사명만으로 의미를 다 해석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결심하시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영웅적로동계급의 강용한 기상, 위대한 조선인민의 억척의 신념과 비상한 창조정신이 검푸른 날바다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가 솟아오르게 한 기적을 낳게 하였다.

고암－답촌철길은 단순한 하나의 철길이 아니며 무심한 두줄기 궤도가 아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안아올린 명실공히 자력갱생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밤이 없었다는 석전만의 3년세월, 나라의 첫 해상철길건설이라는 초행길을 헤치던 그 나날 오직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새 기술,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자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운 고암－답촌철길건설자들이였다.

이들이 착상하고 도입한 새 공법, 새 기술들을 다 묶으면 우리 식의 새로운 해상철길건설교과서가 될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가.

해상철길다리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가물막이를 하지 않고 해상기초를 박아 건설하였고 큰 은을 낸 콩크리트압송기술도 철도구조물시공에 처음으로 도입된것이다. 한개 경간의

길이가 수십m나 되는 아치형트라스를 지상에서 제작한 다음 배기중기로 날라다 통채로 들어올려 조립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법들을 남들처럼 억대의 자금을 요구하는 대형설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설비와 장비로 해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것이다.

이 해상철길이야말로 단순한 하나의 철길이 아니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펼쳐진 또 하나의 상승주로, 귀중한 비약의 궤도인것이다.

위대한 인민의 비상한 창조정신이 깃든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흰갈기 물결만이 출렁이던 날바다 한가운데 아득히 뻗어나간 철길궤도를 바라보시며 정말 훌륭하다고, 마치 미술작품을 보는것같다고 기쁨에 넘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그 영상을 우리 인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참으로 자력자강의 거창한 창조대전과 더불어 이 땅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고 대비약, 대혁신의 승전포성이 련이어 터져올랐다.

전 인민적인 창조대전은 그 수준에서뿐 아니라 속도에서도 질풍같이 내달려 기적만을 창조하는 비약적인것으로 하여 더

욱 자랑스럽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찍부터 무엇이나 세계적수준을 단번에 도약하는 눈부신 속도로 창조해나가야 한다는 높은 리상을 내세우시였다.

하기에 피눈물의 언덕에서 생눈길의 첫 자욱을 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내세우신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비약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평양속도와 같은 시대어의 탄생과 함께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솟구치는 자랑찬 비약의 속도창조로 뚜렷이 립증되였다.

그것은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투쟁정신, 진군속도를 변함없이 계승하여 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잘 알수 있다.

천리마라는 말은 우리 인민 누구나의 가슴속에 너무도 소중히 새겨져있다. 재더미우에서 시작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창조의 력사가 천리마라는 이 말과 더불어 펼쳐졌던것이다. 천리마야말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줄달음치는 우리 조국의 대비약, 대혁신의 대명사이다.

천리마의 속도로 기적을 창조하며 일행천리하여온 우리 조국

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인민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이 땅우에 새로운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을 불타는 맹세를 더욱 가다듬었다.

만일 이미 이룩한 성과를 두고 자화자찬하고 자만도취되여 순간이나마 지체한다면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적수준을 돌파할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치렬한 국력경쟁에서 패자의 신세를 면할수 없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드높은 창조의지이다.

남들이 걸은 10년, 100년을 1년, 10년으로 주름잡으며 내달리자, 그것도 평온한 정세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방해책동속에서 대비약을 이룩해나가자.

이런 각오와 의지를 안고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새로운 시대속도창조로 비약의 룡마가 나래치는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았다.

공화국에서 천리마가 태여난 1956년으로부터 꼭 60년이 되는 2016년에 새로운 비약의 룡마가 날아오른 기적의 탄생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언하신것처럼 2016년에 진행된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전민결사전, 력사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이였다.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이룩된 기적과 위훈은 천리마를 타고 력사의 새 기적을 창조해온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최후의 결승선을 향해 더욱 질풍같이 내달리는 강용한 우리 인민의 창조본때를 온 세상에 과감히 시위한것이였다.

90여정보의 부지에 4 800세대이상 되는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40여동의 공공건물을 새로 일떠세우고 70여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개건해야 하는 려명거리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간단치 않은 대건설전투였다.

당시에 우리 나라에서 층수가 제일 높은 70층살림집만 놓고보아도 총높이가 200여㎙이고 연건평이 12만여㎡로서 그 규모와 공사량이 참으로 아름차고 방대하였다.

바로 이 려명거리건설에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대비약속도가 뚜렷이 과시되였다.

려명거리를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우리의 국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려명거리건설자들은 당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이라는 신심과 배짱을 안고 작업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20여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십동에 달하는 종전의 낡은 건물들을 들어내고

방대한 량의 버럭처리와 기초굴착을 끝낸데 이어 골조공사에서도 련일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상징건물인 70층초고층살림집 한개 층의 골조시공시간이 36시간으로부터 24시간으로, 또다시 12시간으로까지 단축되여 불과 74일만에, 축구경기장을 여러개 합친것보다 더 큰 4만 3 000여㎡면적의 외벽타일붙이기는 단 13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비롯하여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전변되는 새로운 시대의 건설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주체106(2017)년 3월 완공단계에 이른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려명거리건설장에 와보면 우리 인민의 강국건설기상이 나래치는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창조되는 건설속도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진군속도이며 우리 당의 강국건설속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치르면서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사회주의선경거리를 희한하게 일떠세운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며 우리 인민은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세월을 앞당기며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해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진군속도가 어떤것인가를 온 세계앞에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새로운 비약의 룡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 분과 초가 다르게 강산을 변모시키는 대비약의 속도야말로 위대한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주체조선의 진군속도이며 위대한 인민의 창조방식이다.

우리 조국력사에 기적의 년대기를 새긴 천리마대고조의 전통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오늘도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고있다.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내달리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방식이고 창조본때이다.

비약의 속도창조, 련발적인 창조방식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나가는 위대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은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길에서 더욱 승화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높은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는 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며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해내고야말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시련은 의연 계속되고 더 많은 도전과 난관들이 가로놓일수 있지만 일심단결의 불가항력, 거창한 창조대전의 위력으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전진을 지연시킬수도, 정체시킬수도 없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 휘황한 미래가 위대한 인민을 부르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의 세기로 공인되는 21세기에 들어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군길을 다그쳐나가는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용이 날이 감에 따라 더욱 용기백배해지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장엄한 선언과 더불어 강국에로의 더 큰걸음을 내짚은 때로부터 지나온 10년간은 우리 인민이 강국의 원대한 꿈과 웅대한 설계도를 튼튼한 궤도우에 싣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기운차게 내달려온 긍지와 자부로 가득찬 나날이였다.

난관과 시련을 딛고 조선을 무섭게 일어서게 한 약동의 힘, 창창한 새시대를 열어놓게 한 강위력한 동력은 다름아닌 과학기술의 무궁무진한 힘이였다.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여기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나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강국의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해나가려는 주체조선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응축되여있으며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부강조국건설의 령마루를 향하여 기세차게 전진해가는 위대한 인

민의 용용한 기상이 맥박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에 나라의 번영과 민족부흥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기에, 더우기 조선이 강해지는것을 한사코 막아나서는 온갖 방해와 도전들을 물리치는 위력한 보검이 다름아닌 과학기술이기에 우리 인민은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면 국방과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종합적국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강국의 웅대한 구상과 과감한 실천으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가며 강해지는 주체조선의 위용속에 절세위인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들어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이 나라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력력히 어려온다.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힘찬 진군길에서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변함없이

틀어쥐시고 그 실천투쟁의 진두에 다름아닌 과학자, 기술자들을 주력군으로 당당하게 내세워주시였다.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혁명의 강력한 핵심부대, 핵심력량이라고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과학자, 기술자들을 강력한 핵심부대, 핵심력량으로 내세운 것이야말로 력사의 그 어떤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천리혜안의 전략적선택이였다. 그것은 자주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에로의 비약적인 발전과 최후승리의 휘황한 미래를 담보하는 경이적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절세위인의 탁월한 정치와 더불어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해가는 새시대에 과학과 과학기술인재의 지위와 역할은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값높이 평가해주시고 때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여 강국의 존엄을 떨치는 력사적인 사변들을 안아오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온 세상이 다 부럽도록 최대의 특전과 최상의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은정속에 이 땅우에는 금방석이라는 시

대어와 함께 얼마나 많은 전설같은 사랑의 화폭들이 무수히 펼쳐졌던가.

세인의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솟아난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를 비롯한 행복의 보금자리들이며 미래상점과 연풍과학자휴양소와 같은 사랑의 금방석들은 그대로 하늘의 별도 따다주는 심정으로 과학자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과학기술전선이 제일척후전선이라면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주력군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과학자, 기술자들모두가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제끼며 핵심부대로서의 강용한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혜뿐 아니라 피와 땀, 목숨까지 다 바쳐서라도 해내고야마는 성격과 기질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그들의 목표는 최첨단이며 투쟁방식은 끊임없이 세계에 도전하고 반드시 릉가하는것이다.

첨단을 돌파해도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우리 힘으로.

바로 이것이 첨단돌파전에 관통되여있는 사상정신적기초이다.

조건과 환경은 어려워도 만만한 야심과 랭철한 리성으로 세계를 직시하며 첨단과학기술의 핵심을 틀어쥐고 눈부시게 활용하고있는 미더운 과학자대군의 줄기찬 투쟁으로 이 땅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고있다.

조선의 첨단돌파력은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체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력, 자력자강의 돌파력이라는데 그 무한대한 종심이 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과학기술과 국력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련이어 성공적으로 만리창공에 쏴올렸고 맞다드는 세계적인 경쟁자들을 모두 누르고 단연 패권을 쥔 천연흑연제품을 개발하였는가 하면 세계의 권위있는 과학기술잡지들에 조선과학자의 이름을 단 괄목할만한 론문과 평론들이 실리고있고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노는 쟁쟁한 실력가들의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뿐만아니라 주체철용광로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의 확립, 지하전동차와 륜전기재들, 현대건축예술의 정수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비롯하여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날에 날마다 이룩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경이적인 성과들마다에 과학자, 기술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슬기가 번뜩이고있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기수, 창조의 거인으로 당당히 자라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제끼며 핵심부대로서의 강용한 기상과 뛰여난 창조적재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이런 충실하고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대군을 가지고있기에 공화국의 힘은 무진막강하며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거창한 창조대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시대의 투철한 선구자들일뿐 아니라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 헌신하는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강대한 조국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 지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여기에 주체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있고 특출한 인간적풍모가 있다. 그들의 피와 땀은 조국의 전진과 인민의 생활속에 공기처럼, 물처럼 속속들이 스며들어 국력을 키우고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종자 한알을 위해서도 한생을 바치고 설사 백만금을 낳는 일이라도 나라와 인민에게 해가 되는것이라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것이 이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철칙이며 륜리이다.

향유보다 창조를 삶의 목표로 내세우고 서슴없이 고뇌에

찬 사색과 탐구의 길에 한생을 바치면서도 그 열매를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더없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한두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애국과학자!

이 값높은 부름에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특출한 인간적풍모가 응축되여있다.

애국의 마음이란 한점의 티도 없는것이여서 그것을 지닌 과학자에게는 자그마한 사심도 없다. 그런 과학자는 한생 변함없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렵고 간고한 과학탐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법이며 필요하다면 생명도 아낌없이 내대고 다음 세대의 과학연구에 한생의 피타는 노력이 깃든 연구자료를 주저없이 바치기도 한다.

그렇듯 보석같은 량심과 지조, 애국심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과학탐구의 길에서 희생적인 헌신성, 불같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국과학자로 온 나라가 다 아는 과학자의 전형,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과학자들이 발휘한 애국헌신의 고귀한 정신세계는 얼마나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는가.

처음부터 생물농약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형언할수 없는 난관과 시련의 련속이였고 과학자의 참된 신념을 검증하는

과정이였다. 그러나 자기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손길, 성공을 바라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무조건 보답해야 한다는 애국적신념이 투철하였기에 연구집단은 연구사업을 계속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였을 때에도 한치의 양보나 변심을 모르고 억척같이 일어나 과학적신념을 지켜냈고 마침내 우리 식의 첨단생물농약의 공업적인 생산기술을 끝끝내 확립하는 그날을 맞이하고야말았다.

지금도 사람들은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신 그날 첨단수준의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 연구원의 과학자들은 애국과학자들이라고,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된 과학자가 되려는 일념을 안고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과학자들을 업어주고싶다고 하시며 생물농약연구개발과 생산의 공업화실현에 적극 기여한 공로있는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10월 10일 경축행사에 특별손님으로 초대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을 가슴뜨겁게 새겨보군 한다.

이들만이 아니다.

최근년간 매해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여 온 나라에 널리 소개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연구소의 연구사나 자그마한 공장의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애국의 신념을 소중히 새겨안고 조국번영의 길에 성실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7(2018)년 4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전선이 제일척후전선이라면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주력군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최상의 믿음으로 강국건설의 대진군의 맨 앞장에 자신들을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지금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에서 보다 큰 과학적성과들을 창조하며 애국과학자로서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고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신념의 강자, 뛰여난 실력가, 참다운 애국자들로 자라난 혁명적지식인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고 어머니당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첨단돌파에 매진하는 슬기롭고 용감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는한 조국땅에는 반드시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 부강번영의 창창한 래일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새 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발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비롯한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이야말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인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고조되고있는 과학기술중시기풍은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혁명의 담당자, 주인이 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전개하며 자력자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최근년간 온 나라 각지에서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운동과 함께 4.15기술혁신운동,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벌어지는 속에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생산공정을 현대화, 정보화하고 자체의 힘으로 설비, 자재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해마다 수많은 단위들이 3중모범기술혁신단위, 2중모범기술혁신단위,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세계의 언론들도 자기식의 위력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고 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공화국은 자력자강의 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반드시 경제강국

을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과학기술중시기풍의 앞장에 선 3대혁명소조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운동발단 40돐이 되는 주체102(2013)년 2월 력사적인 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각지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혁신적인 새 기술창조로 단위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동해나가는 기술혁명의 척후병, 3대혁명수행의 기수라는 자각과 열의로 충만되여 비상한 애국적열정과 창조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이 발표된 이후 한해동안에만도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4 500여건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2016년에는 8 000여건의 기술혁신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사실들을 놓고서도 그들의 드높은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어떤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2021년 11월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를 3대혁명화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가

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에서 3대혁명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회를 계기로 전국의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3대혁명의 최전성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로 빛내이려는 필승의 신심과 용기로 끓어번지였다.

지금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세는 충천하다.

신문, 방송, TV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에서는 매일이다싶이 각지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파견단위에서 이룩하고있는 기술혁신운동과 창의고안성과들이 대대적으로 소개되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눈부신 활약과 더불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발전과 변혁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과학기술의 힘이 더욱 증대되고 자립경제의 전면적, 지속적발전의 밝은 전망이 마련되고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자기 가사처럼!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만인민에게 심어준 과학기술중시의 관점이고 립장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자기 가사처럼 여긴다는

것은 말그대로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을 놓고 늘 생각하듯이 과학기술을 대한다는것이며 제살붙이들을 위해 발벗고 뛰여다니듯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준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지금 우리 인민들은 어제날까지는 로력과 자재, 자금이나 시간을 문제해결의 첫자리에 놓았다면 오늘은 과학기술을 그 맨 앞장에 내세워야 한다는 철저한 각오와 립장을 가지고 모든 단위와 초소들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천사만사의 첫자리에 놓고 진행해나가는 기풍확립에 떨쳐나서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앞장에서 사업작전과 분담의 첫자리, 관심과 헌신의 첫자리, 총화평가의 첫자리에 과학기술을 놓는것을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이자 증산이고 효률이며 절약이고 예비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하는 기풍이 공기처럼 지배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시대정신의 불길이 타오른 강원도에서는 이전에는 도당위원회의 중요회의들에 과학자들이 참가한적이 없었지만 몇해전부터는 새 일감을 놓고 꼭꼭 과학자들을 참가시켜 의논을 하고 최선의 방도를 찾아내는것이 확고한 기풍으로 되고있다. 도당책임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상에 대하여 자기 집식구들처럼 속속들이 알고있고 좋은것이 하나 생겨도 과학자

들부터 먼저 생각하며 훌륭한 사업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늘 왼심을 쓰면서 아글타글 뛰여다니는 작풍은 누구나 공감하고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가사처럼 사랑하는것이 국풍확립의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오늘날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로동자라고 하여도, 특정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따로 있다고 여겨온 봉사원이나 평범한 가두녀성이라고 하여도 과학자, 기술자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첨단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기풍이 철저히 세워져가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속에 너도나도 원격대학 학생이 되여 현대과학기술지식의 소유자로 준비해가고 전문과학연구기지도 아닌 평범한 초소들에서, 그지없이 소박한 사람들이 놀라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척척 내놓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나날에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나간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대군을 비롯한 이 땅의 주인들은 긍지높이 말한다.

머지않아 온 세계는 과학기술의 힘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위대한 현실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라고.

새 문명의 참다운 창조자로 자라나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는 활기찬 력동의 시대, 획기적인 발전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사회주의문화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눈부신 창조와 보람찬 투쟁과 더불어 새 문명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 주인들로 성장한 더없는 자부와 긍지로 가득차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될 래일을 내다보며, 사회주의문명국의 휘황한 꿈과 리상을 품어안고 천하제일강국에로 향한 대전환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였던 우리 인민이였다. 준엄한 시련을 수없이 헤치고 억세게 일어나 약동하는 젊음의 기상으로 비약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놓은 우리 인민이다.

10년세월 눈부신 비약과 기적창조로 줄달음쳐온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면 우리자신도 놀라울 정도이다. 그처럼 어렵고 힘겨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명의 창조물들, 인민의 재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고 새 문명의 희한한 바람들이 일어번졌던가.

현대적건축미를 자랑하는 창전거리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릉라도인민유원지의 천지개벽, 인민극장의 황홀경, 인민야외빙상장 은반우에 꽃펴나는 웃음소리, 행복의 질주 미림승마구락부의 말발굽소리, 세계가 경탄하는 인민의 집 문수물놀이장, 문명이 오는 소리 마식령의 스키바람,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들의 금방석으로 마련된 은하과학자거리며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문명의 새옷을 떨쳐입은 조선의 첫 안내자마냥 변모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21세기 사회주의문명농촌의 본보기 장천땅의 선경, 광명한 미래에로 가는 렬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로 이름난 과학기술전당,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된 삼지연의 새 모습…

정말이지 새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그 수많은 창조물들과 그와 더불어 인민들 누구나 누려가는 향유의 더없는 기쁨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하다면 이 놀라운 사회주의문명의 전성기는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이 물음앞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가슴뜨거워옴을 금할수 없어한다.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모두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고 분투하시는분, 자신의 천만

고생으로 꽃펴나는 인민의 웃음소리에서 무한한 행복과 삶의 보람을 찾으시는 친근한 어버이.

그이는 인민의 위대한 태양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려는것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확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결심이였다.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장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바로 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참모습이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되고 어렵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래일을 그려보시며 사회주의문명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모두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시였다.

그 길에 바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를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억수로 쏟아지는 비에 옷자락을 흠뻑 적시며 새로 일떠서는 병원건설을 세심히 지도해주신 그날의 격정, 아슬한 공중

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시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시던 마식령의 그 겨울날,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깊은 산골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의 용출량까지 헤아려보시던 그 로고…

지금도 눈앞에 생생히 어려오는 그 숭고한 화폭들과 함께 이 땅우에서는 한해가 다르게 **김정은**시대의 문명의 높이를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구쳐오르고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식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차넘치는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지 않았던가.

사회주의문명건설에 관한 절세위인의 원대한 리상과 목표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려는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의 건설속도와 눈부신 기적의 창조로 줄달음쳐온 우리 인민이다.

지난 10년동안에 이 땅에 솟아오른 우리 시대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며 문화정서기지들 하나하나에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과 의도를 받들어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힘차게 다그치는 길에 바쳐진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의 충성의 구슬땀, 애국의 열기가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마식령스키장.

그 옛날 산세가 하도 험하여 말들도 쉬여가는 령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마식령이라고 불렀다는 이곳에 10개의 스키주로들과 자연풍치에 어울리는 매혹적인 호텔을 포함한 마식령스키장이 최단기간내에 일떠설수 있은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가.

눈이 많이 내리고 스키주로를 형성하는데 적합한 지대인 마식령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스키장을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해발 1 000㎙가 넘는 건설장을 여러 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줌으로써 마식령지구에서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하시는 그이의 열렬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군인건설자들과 건설자들은 불사신마냥 떨쳐일어났다.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는 방대한 공사량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조선의 새로운 건설신화, 마식령속도가 창조되였다.

참으로 격렬하고 준엄한 투쟁속에서 완공된 창조물이였다.

마식령스키장이 절대로 완공될수 없을것이라고 떠벌이면서

건설을 음으로양으로 방해해나선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했다. 마식령에서 장마가 들이닥쳐 조금 패여져나간 주로를 보고도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이 혹심하게 파괴되였다고 요란하게 떠들어댔고 삭도를 비롯한 스키장건설에 필요한 설비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가는 곳마다에서 훼방을 놓았다.

하지만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건설자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하여도 또 어떤 훼방을 놓는다고 하여도 령도자의 구상을 무조건 실현해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와 각오를 안고 건설전투의 날과 달을 기적과 위훈으로 새기며 마침내 완공의 그 날을 앞당겨오고야말았다.

마식령스키장이야말로 령도자와 함께라면 산악이 천만이라도 단숨에 떠옮길 준비가 되여있으며 바다가 열백이라도 순간에 메워버릴 불타는 각오로 충만되여있는 충직한 인민들만이 일떠세울수 있는 자랑찬 창조물이다.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로 솟아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해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부흥을 이룩하시려는 일념밑에 형성안만도 무려 2 000여건이나 지도해주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이름없던 양덕의 산간벽지가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는 온천문화휴양지로 웅장하게 변모될수 있었다.

그이의 위민헌신의 세계에 고무되여 공사에 동원된 전체 건설자들은 불타는 충성심과 애국열의를 활화산마냥 분출시켜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문명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를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불과 4년전의 옛 모습은 어느 하나도 찾아볼수 없게 소재지는 더 말할것 없고 10여개 동, 리들이 마치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같이 전혀 새롭게 일떠선 삼지연시의 희한한 전변은 또 어떠한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인 삼지연시를 영원한 태양의 성지, 산간도시의 전형, 리상적인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세우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삼지연시꾸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몇년사이에 삼지연땅을 찾고 또 찾으시고 몸소 설계가가 되시고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찾아오실 때마다 새로운 높은 단계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의 자욱을 따라서 건설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북방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방대한 건설공사를 중단없이 완강하게 추진하였으며 마침내 삼지연시건설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왔다.

지난해 11월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시건설대상들마다에는 당의 웅대한 구상과 결심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고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고결한 충성심과 강인한 의지, 진한 땀방울이 슴배여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인민의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제힘으로, 제손으로 사회주의문명의 새 세계를 창조하며 참다운 문명의 령마루를 하나하나 점령해올수 있었다.

세계 진보적인류도 한결같이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심과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그들의 강의성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불과 몇년사이에 아득한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름다운것들이 우리 당대의 향유의 재부로 되였고 다른 나라의 재벌들이나 맛볼수 있는것이라고 보았던 호화스러운 생활도 우리자신의 보통생활로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최상의 문명을 설계도 그림도 아닌 현실로 보고 페부로 절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자신의 생활과 미래를 보는 눈이 확연히 높아졌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문명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불멸할 업적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비단 세계적수준의 문명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향유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보다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을 새 문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갖추어나가기 위해 노력해간다는 그것이다.

사실 전체 인민이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함께 문화의 여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새로운 문화적재부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참답게 향유할줄 아는 높은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나라가 다름아닌 발전된 문명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나감에 있어서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고계신다.

공화국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귀에 익은 말로 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우리 인민을 현시대의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나가는 미더운 역군들로 준비시키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구상에 의하여 제시되였으며 오늘날 커다란 생활력으로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짤막한 시대어속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키워 문명국의 당당한 주인들로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응축되여있다.

우리 인민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의 실력문제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받들고 일군들부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실력의 소유자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실력향상, 실력경쟁의 열풍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쟁쟁한 실력으로 맡은 단위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는 실력가형의 일군대렬이 늘어나고 과학탐구에 열정을 쏟아붓는 일군들속에서 박사지배인, 박사관리위원장 등 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되고있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스승의 슬하에서 수많은 일군들이 누구나 강국건설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현대과학기술과 실천능력을 소유한 실력가, 다재다능한 팔방미인들로 준비해가고있다.

일군들뿐이 아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로동계급을 주력으로 내세우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공화국의 미더운 로동계급은 전민과학기술인재

화실현에서도 선봉적역할을 다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그물망처럼 덮인 과학기술보급실들에서 근로자들이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보급기지들로부터 자기 전문분야의 과학기술지식을 비롯하여 폭넓고 풍부한 지식을 전수받으며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해나가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과학기술전당과 각지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기술보급실들이 하나의 망으로 련결되고 여러 교육수단에 의한 원격교육방식으로 누구나 일생동안 공부할수 있는 전민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게 됨으로써 전국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펼치며 전민학습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첫 원격강의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10여년동안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정연하게 세워진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강의를 받았으며 그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110여명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데 이어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주요대학들에 입학하여 원격교육학부 졸업생으로 되였으며 생산

활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남김없이 활용하여 원격교육체계의 커다란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몇해전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을 놓고봐도 원격교육대학을 졸업한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자동조사기의 조종프로그람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창조의 능수들로 성장하는 로동계급의 모습이 그토록 대견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참모습이라고, 앞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광범히 운영되면 10년후에는 공업전반에서 큰 덕을 볼수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와 그를 충직하게 받들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인재들로 준비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인재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의 휘황한 미래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돌파구가 열리고 교육사업전반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면서 공화국은 세계적인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돌진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보건, 체육, 문학예술부문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열기는 나날이 고조되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요구에 맞게 문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데서 특별히 주목할만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서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자긍심에 넘쳐 집단주의적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는것이 하나의 국풍으로 확립되여가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 미학관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것은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어제도 그러했던것처럼 오늘날에 와서 우리 내부에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퇴페적인 생활양식을 류포시켜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 도덕적타락분자로 만들고 사회주의제도의 정신도덕적기초를 허물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은 외부적으로는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제압하고 내부적으로는 비사회주의와 퇴페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는 공

격전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투철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우리 식의 우월한 생활양식, 생활기풍을 고수하고 확립해나가기 위해 분발해나섰다.

이와 함께 우리의것을 제일로 여기고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기풍이 고취되여 옷차림과 몸단장을 해도 우리 식으로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고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가락과 흥취를 돋구어 부르며 식생활에서도 민족적인것을 중시하고 일반화하는것이 시대적흐름으로, 국풍으로 확립되고있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바람》에 휘말려 남의 식, 남의 풍을 따르다가 종당에는 걷잡을수 없는 정치적혼란과 내전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된 여러 나라와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통해서 우리 인민들은 우리 식의 생활기풍, 도덕기풍을 고수하고 더욱 철저히 확립할 때만이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지키고 빛내이며 그 품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에 당 제8차대회와 그리고 여러 중요회의들에서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분

야의 사업을 혁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추동할 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금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하루빨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실 절세위인의 웅지를 빛나게 실현하고야말 드높은 결의와 의지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국가의 무궁번영과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일편단심 따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길에 용약 떨쳐나선 위대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문명의 전성기를 최전성기로 이어가며 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4.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 우리 집을 빛내여간다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록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인 기풍이 더 높이 발휘되여야 하며 덕과 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완성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고 리상입니다.》

김 정 은

사회주의 우리는 너를 사랑해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수많은 명곡들가운데는 노래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도 있다.

네 품에선 새들도 노래부르고
사람들 친형제로 화목하여라
수령님 세워주신 해빛밝은 집
사회주의 사회주의 우린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회주의 내 조국을
…

노래만큼 인간의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장 진실하고 아름답게 담아내는것은 없다고 본다.

하다면 우리 인민들이 이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까닭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노래가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의 전부로 여기고 더없이 사랑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

정녕 그것은 가장 정의롭고 고결하며 아름다운 인민들만이 심장에 지닐수 있는 고귀한 말이다.

그 위대한 부름을 한번 조용히 외워만 보아도 모두의 가슴가슴은 저절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월, 우리가 삶의 깃을 내린 이 땅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고마움의 격정이 솟구치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여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리념이 꽃피는 우리의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사랑의 감정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가 태여난 때로부터 한세기를 넘기는 기나긴 세월 동유럽사회주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의 력사속에 존재해왔다.

하지만 주체의 사회주의조선과 같이 희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기식으로, 자기 힘으로 건설하고 공고발전해나가는 사회주의국가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찌기 밝혀주신바와 같이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자그마한 우여곡절과 편향도 없이 빛나게 개척하여온 독특한 사회주의이며 뚜렷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는것을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폐부로 절감하였다.

돌이켜볼수록 주체의 사회주의는 정과 사랑이라는 마를줄 모르는 젖줄기로 이 땅의 인민을 먹여주고 자래워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냈다.

이 땅에서는 내버려지고 소외당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이 조직과 집단, 동지와 이웃들속에서 서로 도우며 화목을 나누어가고있다. 알고 받는것보다 모르고 향유하는것이 더 많고 사회주의가 베푸는 뜨거운 정을 매일 매 시각 공기처럼 마시고 피와 살로 느끼며 살아가는것이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다.

사회주의와 우리 인민의 상봉은 어머니와 그 슬하의 식솔처럼 서로가 피로써 찾고 운명으로 결합된 혈연적인것이였다.

적대세력들이 장장 수십년세월 온갖 비방과 중상을 다해가며 악랄하게 책동을 하였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사랑의 감정을 절대로 흔들어놓을수 없었다.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귀중함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고난의 그 시절 어머니품에 드리운 상처와 괴로움에 대한 가슴허비는 아픔보다 더 뜨겁게 인민의 마음속에 흘러드는것은 어려운 속에서도 끝없이 와닿는 고마운 손길이였다. 그 사려깊은 손길이 매 사람들과 매 가정을 떠난적 없고 힘든 속에서도 고마운 시책들이 자신들의 몸에 쩌릿이 와닿을 때마다 우리 인민은 눈물겹도록 사무쳐오르는 감사의 정과 열화의 정을 금할수 없어하였다.

모진 광풍이 불어쳤어도 자식만은 더 포근히 껴안아주는 어머니와도 같은 사회주의의 그 고결함과 뜨거움에 가슴을 적시던 이 나라 인민의 눈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꿈도 꿀수 없고 흉내조차 낼수 없는 놀라운 힘, 사회주의의 높은 정신력과 단결력, 발전과 비약의 무진장한 잠재력의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이렇듯 크나큰 자부심과 열렬한 사랑의 정이 뜨겁게 고패치고있다.

정녕 인민에게는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과 같고 그것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품이 바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의 열도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구현되고있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승화되고있다.

지난 10년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더불어 경이적인 현실이 눈부시게 펼쳐졌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인민들을 위해 황홀한 새 거리들이 해마다 끊임없이 일떠서고 세상이 보란듯이 현대문명의 꽃방석들이 인민들에게 련이어 차례졌다. 희한한 야영소와 궁전과 학교들이 도처에 세워져 아이들의 복은 차넘치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꽃피우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가 국가의 3대전략자산으로 빛뿌리고있다.

흘러온 10년세월의 나날 기뻐도, 힘겨워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빛나게 실현되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과 정은 매일, 매 순간이 감사의 꽃다발로 엮어졌고 인민과 사회주의는 순간도 가를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은 생명에 대한 요구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것으로 되였으며 그에 대한 신념과 희생은 그 어떤 의무이기 전에 양보할수 없는 인민자신의 신성한 권리로 되였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과 애착은 세계최강의 전략자산이나 억대의 재부보다도 더 큰것으로

되였고 그것은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막강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믿음과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토록 최상의 경지에로 승화될수 있은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태양과 거목!

생명의 열원과 그 무한한 힘에 대한 가장 뚜렷한 표상을 담고있는 이 말속에 그 대답이 있다.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사회주의가 무궁토록 푸르싱싱한 거목이라면 그것을 자래우고 빛내여주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의 손길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뜻과 걸어오신 길을 다 합쳐 반만년민족사의 류례없는 번영기를 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사회주의의 최고화신이시다.

우리 인민들은 가슴에 사무치도록 너무도 잘 안다.

지난 10년간 전대미문의 난관이 겹쳐드는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사회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고 그 시책을 변함없이 구현하며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가를 다 보고 다 느끼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단 하나 인민을 위하여, 인민때문에, 인민의것이기에 길은 여러 갈래여도 오직 사회주

의한길만을 이어가시며 세상이 다 못가도 기어이 가시고 상상할수 없는 만단시련이 굽이굽이 중중첩첩 막아서도 기어이 가고 또 가시였다.

아직은 많은것이 부족하고 생활은 어려워도 인민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래일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겪으시는 천신만고를 다 알고 느끼고있기에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은 더 눈물겹고 그 믿음은 더 깊이 뿌리내리고있는것이다.

나라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벌려온 창조와 건설을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으로 이름지어 부른다.

하나의 큰 전쟁을 가리키는 대전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이 땅에 펼쳐졌던 마식령전역, 청천강전역, 려명전역, 삼지연전역, 양덕전역, 중평전역, 단천전역, 북부피해복구전역 그리고 수도시민들을 위한 오늘의 대건설전역…

이 땅에 일어번진 건설대전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싸움,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긍지높은 삶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싸움이였다.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손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잘살기 위한 끊임없는 건설과 창조의 대전이였다.

주체110(2021)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건설자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충만된 열정

적인 연설을 하신 그날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한 우리 인민이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올해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방대한 공사이지만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이 다시한번 크게 과시될것이라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그이의 연설을 자자구구 심장에 아로새기며 우리 인민이 느끼고 새겨안은것은 과연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 다름아닌 인민을 위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당의 품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더없는 고마움이였다.

인류의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와 대재앙으로 온 세계가 류례없는 동란을 겪는 속에서도 인민의 재부, 인민의

창조물과 더불어 날로 더 높아지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여운 자식들이 나라에서 마련해준 새 교복을 입고 우리가 만든 학용품이 가득찬 우리의 책가방을 메고 발걸음도 씩씩하게 등교길에 오를 때마다, 돈 한푼 내지 않고 희한한 새집에 이사짐을 풀어놓은 날 뜨거운 눈물로 한밤을 지샐 때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한없는 고마움과 귀중함에 목메이며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 밝고 창창할 자기의 생활과 운명을 확신한다.

그렇다.

사회주의, 이것은 곧 행복이고 긍지이며 더 좋은 미래이다.

사람이 자기가 딛고 선 땅과 부모형제, 정든 집을 잊고 살수 없듯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하나의 사회정치제도로서만이 아닌 자기 생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처럼 열렬히 사랑하는것이다.

사랑하자, 우리의 사회주의를!

받들자, 우리의 사회주의를!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사회주의한길만을 가고갈 우리 인민의 자각과 분발의 웨침이다.

지켜야 사회주의이고 이겨야 사회주의이다.

하기에 자나깨나 어려워도, 행복해도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분발하고 또 분발해가고있는 우리 인민이

있어 오늘처럼 최악의 고난과 난관속에서도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의 노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가고있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지혜와 땀을 밑거름과 지지대로 하여 튼튼해지고 무성해지는 한그루의 거목과 같다.

그 무성한 거목,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받들어 이 나라 천만인민이 자기의 후더운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길에서 더없는 행복과 보람을 찾고 있다.

사회주의가 나의 요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회주의가 너를 사랑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참된 조국애를 지니고 천만이 한마음, 한기세로 일떠서 오늘의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고있다.

사회주의 큰집의 기둥을 받들고 선 보이지 않는 성돌들이 되여 아름다운 생을 가꾸어가는 애국자들을 조국땅 어디 가나 볼수 있고 애국의 피와 땀이 뜨겁게 스민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며 사회주의 내 조국은 기세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정녕 오늘의 이 시대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위대한 인민의 열화의 사랑으로 격동적이고 아름다운 시대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승리와 미래는 강위력한 힘을 지닌 사회주의국가와 그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에게 있다.

21세기의 20년대를 맞이한 지금 세계는 다시금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세월의 풍랑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사회주의의 힘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보고있다.

국제사회의 저명한 분석가들이 향후 발전잠재력이 가장 크고 괄목할만한 변혁을 일으킬 나라는 조선이라고 예언하고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과 자신심을 원천으로 하는 주체조선의 막강한 힘은 오늘을 넘어 저 찬란한 승리의 대안에 뻗쳐있다.

참으로 자랑차다.

기나긴 시련을 끝까지 이겨낸 사회주의, 더 우렁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걸음마다, 시간마다 승리를 기록하는 사회주의, 세상이 우러러보게 될 위대한 조선의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를 끝없이 사랑하는 위대한 인민이 있어 주체의 사회주의는 앞으로도 영원히 무한대한 생명력, 불가항력적인 힘을 발휘하며 인민의 모든 꿈을 이 땅우에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말것이다.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의 사회주의를!

무궁토록 빛내이리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아름다운 화원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사회주의 우리 집, 고마운 조국에 대한 믿음과 애착은 억대의 재부보다도 더 큰것이다.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으로 새겨안고

력사의 온갖 돌풍을 이겨내며 수십년의 장구한 세월 기적과 번영으로 자랑찬 승리의 력사만을 조국청사에 아로새긴 위대한 우리 인민이 남달리 자부하며 꿋꿋이 이어가고있는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뜨거운 애국심, 애국주의의 고귀한 넋과 전통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을 강대하고 부강한 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기나긴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참다운 애국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았고 자기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진정한 애국자들로 성장하였다.

력사의 새시대,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높이 받들어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 천하제일강국건설의 원대한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가슴벅찬 투쟁의 년대, 대번영의 년대이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은 세상에서 두

려운것이 없는 당당하고 강대한 나라, 전체 인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그런것만큼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전체 인민의 숭고하고 열렬한 애국심을 총폭발시켜나갈 때만이 그 승리적전진이 담보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천하제일강국,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빛내여가실 웅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던 력사의 분수령에서 애국의 위대한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그것이 바로 **김정일**애국주의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애국리념을 불씨로 거세찬 애국주의열풍을 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의지와 더불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태여난 **김정일**애국주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과 계기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숭고한 애국주의를 그이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김정일**애국주의로 천명하시고 전체 인민이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대하여 똑똑

히 알고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맞는 천만인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넋으로 심어주신 **김정일**애국주의에 관통되여있는 참뜻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불멸의 애국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력사에는 후세에 이름을 남긴 애국자들이 많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처럼 한생을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으로 불태우시고 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세세년년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휘날릴수 있는 애국사상과 정신을 남긴 그런 애국자, 위인은 정녕 없었다.

자기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애국심, 바

로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참다운 애국주의이며 그 폭과 깊이, 열도에 있어서 력사에 전무후무한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였다.

세상에 그렇듯 뜨겁고 진실한 애국주의는 없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나라에 애국의 열풍이 일어번지도록 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됩니다.》

위인의 애국주의는 위대한 계승속에서만 그 진수가 밝혀지고 대를 이어 빛나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지나온 10년세월은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의지를 열원으로 하여 천만인민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워 거세찬 애국열풍을 일으키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애국적

기상을 만방에 떨쳐온 나날이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천적모범으로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일으키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 봄날 몸소 삽을 드시고 조국의 대지우에 귀중한 나무모들을 한그루 또 한그루 심어가시며 천만의 심장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불씨를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김정일애국주의를 한갖 구호로 웨치거나 기발처럼 들고 나가라는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에서 한평생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의도에 의해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이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여 심도있게 진행되였고 인민군대의 선구자적역할에 의해 전례없는 애국주의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되였다.

그이께서 애국의 표대로 높이 추켜드신 **김정일**애국주의로 하여 이 나라 인민들의 심장의 피가 다시한번 정화되였다.

누구나가 조국의 푸른 하늘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였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되새기게 되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를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우리 인민들이다.

사랑은 곧 힘이라는 말이 있다. 가장 열렬한 사랑과 헌신이 최강의 힘을 낳고 최대의 업적을 낳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적극 구현해나가기 위한 애국열풍을 날로 고조시켜나가며 부강조국건설의 전역에서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주체조선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군로를 열어나가게 하는 불패의 힘도 다름아닌 **김정일**애국주의이다.

흘러간 날과 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을 과시하는 장쾌한 사변들로 수놓아질수 있은것은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김정일**애국주의가 고패쳤기때문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우주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미더운 과학자들의 불같은 충성심과 애국열이 12월의 강설우에서 위성발사성공의 기적을 낳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방력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신 사생결단의 자욱자욱이 국방과학전사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었기에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력사적인 《11월대사변》과 같은 민족사적경사를 안아올수 있었고 그 누구도 어쩔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보유한 무적의 군사강국의 오늘이 마련될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대고조전역에서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최대로 발양되고 나라의 발전면모를 특징짓는 첨단돌파의 성과들과 시대적본보기들이 창조된것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충만된 전 인민적인 사상감정이 과감히 분출된 결과이다.

초인간적인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주체공업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전반에서 질적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하루빨리 지식경제강국, 문명국으로 급부상함으로써 세계를 압도해나가려는 인민의 용기와 열의에 의해 얼마나 많은 기적적사변들

이 이룩되였는가.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정신력의 강자,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 세상을 들었다놓는 영웅적장거들을 이룩하고있다.

창전거리로부터 시작하여 문명의 새 거리들이 해마다 솟구쳐오르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황홀한 건축물들이 일떠서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김정일**애국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전체 인민이 애국의 열의안고 총발동되여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산림복구전투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 그토록 사랑하신 조국산천의 면모가 사회주의선경으로 천지개벽되고있다.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유익한 일을 찾아 자기를 바쳐가는 사람들의 애국의 발자취가 찍혀져가고있는 조국의 산들마다에서는 황금산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애국주의는 결코 추상적인것이 아니다.

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우리 인민들이기에 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도, 그가 누구이든 무슨 일을 하든 조국에 한가지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자신을 묵묵히 바쳐가는 참다운 인간들을 례사롭게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에서 시대의 전형들로 내세우고있는 수많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그들가운데는 자라나는 후대들의 가슴에 애국의 소중한 씨앗을 심어주며 한생을 빛내이는 교육자도 있고 거창한 건설의 대번영기를 받들어가는 수도건설자도 있다. 황금해의 새력사가 펼쳐지는 조국의 바다우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욱을 새겨온 어로공도 있으며 수천척지하막장에서 광물증산으로 번영하는 조국을 받드는 미더운 광부도 있다.

하는 일은 다르고 지켜선 초소는 같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을 안고 조국과 숨결을 같이해온 수많은 애국자들과 그들이 발휘한 수많은 소행들에 대해 다 쓰려면 이 지면이 너무나 모자란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명백히 말할수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고 실천에 구현하고있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 사회주의 우리 집, 우리 공화국은 그렇게 강하고 승승장구한다는것을!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를 진두에 모시고 천만인민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를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삼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들의 애국의 뜨거운 열정을 다 바쳐나가는 바로 여기에 강국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힘이 있고 위대한 승리가 있는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 참으로 이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대한 빛나는 총화일뿐 아니라 그이의 애국념원, 강국위업을 빛나게 이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의지, 애국의 열의가 낳은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다.

력사의 새시대에 태여난 위대한 애국사상,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빛나고 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여

엄연한 현실이 보여주듯이 전대미문의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고있는 나라는 아마 이 행성에 공화국밖에 없을것이다.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곤난은 두말할것없이 이 나라의 매 가정, 매 공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인들은 오히려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조국을 굳건히 받들어나가고있다.

언제나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의리의 인간이 되자!

이것이 절세의 애국자의 손길과 더불어 애국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체질화한 위대한 인민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새겨진 삶의 좌우명이고 량심의 고백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는 쉬워도 나라를 위해 살기는 헐치 않다. 그래서 애국은 헌신이고 투신이라고 하는것이다.

어머니에게 매여달리기만 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찾아할줄 아는 자식들이 늘어나야 집안일이 잘되고 가정이 번성하기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매 공민들이 자신과 가정보다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며 유익한 일을 찾아할 때만이 그 어떤 최악의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돌파해나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지나온 10년세월 전체 인민이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 애국자의 자세에서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사회와 집단, 조국을 위해 헌신해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자기 일터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들, 자신을 바쳐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만나시면 제일로 기뻐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언제인가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여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마음으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

는 이들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가적 인생관, 후대관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시였던가.

그이의 그렇듯 세심한 손길이 있어 오늘 공화국에서는 사람들모두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하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더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각과 열의는 그대로 전 사회적, 전 인민적인 기풍으로, 국풍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향유할 권리앞에 헌신의 의무를 먼저 놓고 국사를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국사중의 제일국사인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초소에 내세운 총대가정, 온 가족이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켜가고있는 군인가정들이 나날이 늘어만 가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아니라면 어찌 자식들의 오늘이 있겠는가고 하며 세쌍둥이, 네쌍둥이모두를 군복을 입혀 초소로 떠나보내고 9남매모두가 최전연초소에서 복무하는가 하면

자기 집 벽면에 온 가족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을 나란히 걸어놓고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있는 가정, 자식들만이 아니라 손자들까지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사람들을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비단 자식들에게 총대를 메워주는것으로 애국의 본분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인민이 결코 아니다.

원군길이 곧 참다운 애국의 길임을 자각하고 어려워도 힘겨워도 변함없이 인민군대를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며 공민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가운데는 수도 평양에 정든 집을 남겨두고 최전연초소로 달려가 10여년세월 많은 고기와 염소젖을 생산하여 군인들의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며 원군길을 이어가고있는 김희련녀성도 있고 60여년을 하루와 같이 원군길에 살며 수많은 집짐승을 길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준 평양시 사동구역의 김춘옥할머니도 있다.

국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그들의 소행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고 그들처럼 살려는 애국의 열망으로 가슴들을 끓이게 하였다.

누리는 삶보다 바치는 삶이 더 신성시되고 조국과 수령을 위하여 바치는 충성이 가장 값높은것으로 평가되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김희련녀성과 같은 애국자가 나올수 없다. 서로 믿고 돕는 인간다운 사회, 덕과 정이 흐르는 대가정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북의 사회주의제도는 김희련녀성이 무수히 나올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된다.

북은 실제로 애국자와 영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맞서서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되는것이 수많은 영웅과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없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런 토양에서 김희련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것이다.》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길을 걸어온 애국자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고 누구나 가사보다 국사를 귀중히 여기며 원군의 길, 애국의 길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갈 결의로 충만되였다.

나는 나라를 위해 사는가, 자기를 위해 사는가.

매일 매 시각 이 물음앞에 떳떳하게 대답할수 있도록 깨끗한 량심을 바쳐 자기 일터를 굳건히 지켜가는 사람들의 헌신의 세계는 또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인가.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디에서 일하는가가 중요치 않은것이다. 비록 소박한 직업, 외진 곳에 자리잡은 일터라고 하여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할 나의 일터, 나의 초소, 나의 조국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바로 여기에 애국의 참된 삶이 있는것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같이하신 자리에서 애국주의는 특히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앞에 특출한 위훈을 세운 사람도 애국자이지만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를 묵묵히 지키면서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도 애국자이라고,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이라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이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인민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일욕심이 곧 애국주의의 발현임을 더욱 새겨안고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것으로 여기고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겨진 초소에서 성실히 일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비록 직종과 직위는 달라도 모두가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정력적으로 성실하게 일해나가는 참된 애국자대군이 지켜가고있는것이 바로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이다.

지난 시기에도 물론 그러하였지만 오늘날 공화국의 인민들

속에서는 자기 직업을 남달리 사랑하고 맡은 사업에서 일자리를 푹푹 내며 성실하게 일하는것이 더없는 긍지로, 보람으로 간주되고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한직종에서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온 참된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애국적삶이 그 생동한 실례로 된다.

30여년세월 한무궤도전차에서 교대운전사로 일하면서 평범한 날에나 어려운 날에나 운행길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부부운전사, 근 50년을 농촌기계화초병으로 삶을 빛내이고있는 녀성뜨락또르운전수, 우리 신발수리공으로 불리우는 삭주땅의 녀인, 한생토록 정성의 꽃을 피운 우리 간호원, 60년간 탄전을 지켜온 만근자, 나라의 철도운수발전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온 작업반장…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십년세월 한직종에서 성실한 구슬땀을 바치고있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들속에는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 한 기와공도 있다.

그로 말하면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고난의 시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직업을 택할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안일보다 조국의 시련을 더 가슴아파하며 자기 일터를 꿋꿋이 지켰고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그 나날에는 경사급한 지붕우에서 하루종일 땀으로 옷을 적실 때도 있었고 대수술을 받은지 얼마 안되는 불편한 몸으로 력사유적보수사업에 스스로 참가한적도 있었다.

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온 수십년의 로동년한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값높은것은 자기가 겪는 생활난보다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먼저 걱정하며 그것을 풀기 위해 애쓰며 헌신을 다해온 그 순결한 진정인것이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력사유적보수관리사업에 애국의 땀을 바쳐온 평범한 로동자의 삶이 시사해주는것은 참으로 크다.

《한생 걸어온 길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더욱 없구요. …나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흥이 나고 내가 하는 일이 더없이 중하게 느껴집니다.》

도시경영부문의 한 직업에서 3대를 이어 일해가는 신의주물정화사업소 위생시설수리공녀성의 이 진정어린 고백을 통해서도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있는 이 나라 인민들의 고결한 애국의 정신세계를 절감할수 있는것이다.

어려울 때 변심을 모르고 뜨겁게 발휘되는것이 참다운 애국심이다.

전세대의 인간들처럼 언제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조국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려는 남다른 각오를 지닌 이 나라 인민들이기에 류례없는 시련과 도전들이 날이 갈수록 겹겹이 가로놓이고 그만큼 모든것이 어려워지고있지만 조국애의 열기는 더욱 고조만 되고있다.

2020년 9월 태풍9호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함경남북도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때의 일만 놓고봐도 잘 알수 있다.

그때 함경남북도피해복구건설에 수도의 당원들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공개서한은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이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불러주시며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최전선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에 수도의 당원들이 열렬히 화답해나섰다. 그들뿐 아니라 어린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전투대렬에 들어선 녀인이며 지어 일가식솔을 데리고 피해지역으로 달려간 로당원 그리고 몸은 비록 피해복구전역에 서지 못하지만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이 된 마음으로 살겠다며 붉은기를 보내준 영예군인을 비롯하여 저저마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피해복구건설의 나날에 발휘된 수도당원들의 애국심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

시련을 같이할데 대한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물심량면으로 돌보아준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공사일정이 긴장한 속에서도 주변마을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까지 보수해준 수도당원들의 혈육의 정은 그대로 피해지역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그렇듯 뜨겁고 고결한 애국의 마음,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있었기에 70여일이라는 최단기간내에 피해복구사업이 훌륭히 결속되여 홍원, 리원, 허천, 어랑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피해지역들에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희한하게 일떠서는 기적적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다.

당중앙의 애국의 부름을 받들어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을 비롯하여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벌린 위훈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은 거세찬 위훈과 애국의 숨결로 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드높은 애국열과 투쟁본때를 과시하였다.

정말이지 2020년 10월의 그 나날 함경남북도만이 아닌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피해지역에 전설속의 별세상과도 같이 솟아오른 선경마을들마다에서 터쳐나온 로동당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는 그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령도자를 받들고 조국을 위하는 천만인민의 고결한 충성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의 힘찬 메아리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감동깊은 화폭들마다에는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자

기 일처럼 가슴아파하며 국사를 중시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서슴없이,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인민의 애국심, 애국열이 그대로 비껴있다.

심장으로, 온넋으로 조국을 떠받들며 생의 일각일초를 불같은 애국열로 빛내일 일념이 천만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치고있기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전국도처에서 청년들이 선봉이 되여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는 애국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의도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그처럼 어렵고 힘든 조건속에서도 전국각지의 로동계급들과 근로자들이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5개년계획의 첫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지난해 상반년에 벌써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기대공들속에서 10여명의 2년분계획완수자와 140여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된것을 비롯하여 경공업부문의 여러 단위에서 2년분,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련이어 배출되였으며 평안남도 탄전의 수십개 청년돌격대들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를 올리였다.

이렇듯 사심없는 헌신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쳐가는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을 맞으며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지니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고있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뜻깊은 9월의 경축행사장에 불러주신데 이어 당중앙위원회뜨락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머니조국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삶과 투쟁을 조국과 인민앞에 가장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만세!》의 환호를 터치는 참가자들의 두볼로는 격정의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슴배여있다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억센 기상은 애국열의에 불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하시면서 엄혹한 격난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뚫고 헤치며 백번을 일떠서고 천번을 솟구쳐올라 사랑하는 조국을 떠받드는 강의한 인민의 불

요불굴의 투쟁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조선특유의 국위이고 국풍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것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한식솔의 정을 나누며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게 된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진 그날의 화폭을 보면서 우리 인민들은 공화국의 힘과 존엄을 더욱 키우고 부흥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보다 혁혁한 위훈을 떨쳐갈 결심을 가다듬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고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것을 온넋으로 사랑하며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빛내이는 애국열은 날로 고취되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절세의 애국자의 이 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천만인민 모두가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이어놓고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위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 사

회주의 우리 집을 만방에 더욱 빛내이는 길에서 더욱 각성분발해 애국의 더운 피를 다 바쳐나가고있다.

이러한 위대한 인민의 애국의 한마음에 높이 받들린 우리 국가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며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으로 천만년 빛날것이다.

늘어나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대오

애국은 보석과 같다고 말한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크건작건 다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이다.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심장을 통채로 바쳐가는 진짜배기 애국자, 어머니조국이 사랑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시대의 선구자들을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떠받들고 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인간전형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더불어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의 인간, 그 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제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불굴의 투사들,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묵묵히 바치는 백옥같은 량심의 소유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배출된 시대의 전형들만 봐도 참다운 애국자들이였다.

눈비사나운 자강땅에서 세벌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기어이 승리의 새봄이 온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한 박옥희, 천길땅속에서도 수도 평양의 불빛을 가슴에 안고 위훈을 수놓아온 제대군인 탄부 김유봉,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 선구자적기치를 높이 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본보기투사 허용구,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조국의 푸른 숲에 순결한 량심을 묻어온 산림감독원 리웅찬, 청춘도 한생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에 깡그리 바친 녀성과학자 현영라.

시대의 전형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배우는 운동이 보다 활기차게 전개되는 나날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조국번영에 이바지한 애국공로자들의 대렬은 나날이 늘어만 갔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 이렇듯 날로 성장해온 애국의 대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오늘의 시대에 더욱 장성강화되여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일찍부터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초소, 자

기 일터를 묵묵히 지키면서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사람 다시말하여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로 간주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는 누가 보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을 다 바쳐가는 애국공로자들이 수많이 배출되여 만사람을 감동시키고있다.

조국이란 거목을 위해 뿌리가 되고저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치 않은 생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의 고결한 삶은 그대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강국의 래일을 가꾸어가는 이 나라 인민의 애국의 숨결로 뜨겁게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세워준 시대의 전형들인 금골광산 4.5갱 소대장 고경찬,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지배인 김명환, 재령군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반장 윤룡석, 2.8직동청년탄광 9갱 갱장 한승찬, 평양기계대학 연구사 조수경, 원산발전소 건설사업소 지배인 조성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리명순,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 김인규, 세포군산림경영소 지배인 박병준, 황해북도인민병원 안과 책임의사 김명월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시대의 10명전형들은 하는 일도 서로 다르고 겉모양도 수

수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들이 조국을 위해 해놓은 일은 결코 한두마디로 다 말할수 없는것이다.

《중요한것은 자기힘을 믿는거요. 물과 공기만 있으면 바로 이 두손으로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수 있다는 배짱쯤은 있어야 돼.》

《더 많은 석탄을 캘수만 있다면 남들이 못하는 일도 무조건 해야 하오.》

《영웅이 되기 위해 광석을 캐겠다는 관점을 가져서는 큰일을 못해. 수천척 지하막장을 자기 살점처럼 사랑하는 마음부터 키워야 해.》

《의사가 단 한번이라도 실수하면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교육자에게 있어서 실력이 필수적인 무기라면 량심과 성실성은 생명이나 같습니다.》

성실한 인간들의 깨끗한 진심이 어린 이 말속에서 찾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야말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자기 직업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 열정과 지혜를 쏟으며 묵묵히 맡은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온 참된 애국자들이라는것이다.

격동의 시대에 배출된 10명전형들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더

없는 자랑이다. 이들의 영웅적이고 애국적인 삶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의 고무적힘으로 되였으며 그들이 발휘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 일본새는 그대로 사람들모두가 조국을 위한 길에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온 나라가 끓어번졌다.

그 어떤 대가나 명예도 바람이 없이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는 애국자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만 갔다.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이룩한 그들의 공로는 그 무엇에 비길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것이 아닐수 없다.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로동자구의 산들에 가면 잣나무, 이깔나무, 가래나무, 밤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너무도 빼곡해서 대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수천여정보의 나무림이 설레고있다. 북진땅의 이 보배숲에는 근 70년간 대를 이어가며 숲과 함께 한생을 바쳐가는 한 애국자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그 애국자가정이 바로 3대째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산림감독원 강영수가정이다.

나무는 땅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있다.

강영수 산림감독원의 아버지로 말하면 전후시기부터 순

직하는 마지막순간까지 근 45년간 벌거벗은 산림을 자진해서 맡아가지고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꾼 성실한 애국자로서 1980년대초에 창작되여 사람들속에 깊은 감명을 준 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의 원형이다.

아버지가 애써 가꾼 숲이 고난의 그 시절에 심하게 파괴된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 체신분소장을 그만두고 고향땅에 돌아온 강영수는 지금까지 20여년세월 가족소대를 이끌고 온갖 고생을 이겨내며 숲을 살려내고 오늘과 같은 황금산의 전경을 펼쳐놓았다. 오늘은 그의 아들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되였으니 3대를 이어 이 산림을 지켜가고있는것이다.

깊은 산속에 자기 마음의 출근부를 만들어놓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왕복 백여리의 산길을 오르내리며 매일 량심의 도장을 찍어간 숲의 주인들이다.

지도에서 보면 자그마한 점에 불과한 산림을 대를 이어가며 가꾸어가는 애국적소행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토관리총동원열성자대회의 토론연단에도 그를 내세워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두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자신의 몸가까이에 불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애국자가정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신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들이 맡은 산림

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리는 길에서 참된 애국자의 삶을 빛내여나가고있다.

강남군 신흥협동농장 제4작업반의 평범한 농장원인 최성옥녀성.

그는 정보당 3t도 못내던 5정보의 랭습지에서 정보당 13t의 수확고를 내고 전국에 다수확농민으로 이름떨친 농민영웅이다.

몇해전 성옥녀성은 자기가 아글타글하여 가꾼 논에서 10t의 수확을 내였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고 농장적으로 제일 나쁜 5정보의 땅을 자진하여 맡아안았다.

그때부터 그는 남편과 함께 일년 내내 논판에서 살면서 진실한 땀을 바쳐 마침내 정보당 13t의 수확을 거두어냄으로써 실농군에게는 좋은 땅, 나쁜 땅이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많은 면적의 척박한 땅을 남편과 단 둘이서 맡아안고 손끝이 닳도록 돌과 잡초를 들추어냈고 사시장철 진함이 없는 땀으로 포전을 적시며 땅이 꺼지게 농사를 지어 나라에 보탬을 준 최성옥영웅.

평범한 농사군을 나라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다수확농민으로 불러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영웅은 오늘도 분발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소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김덕수선생

도 오래전부터 국가통합전력관리연구사업이라는 탐구의 초행길을 묵묵히 걸어 마침내 성공의 문을 열어제낀 참다운 과학자, 애국자의 한사람이다.

20여년세월에 걸친 그의 남모르는 고생과 과학적신념을 소중히 여기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시기 김덕수선생과 연구집단이 중요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들, 인민군부대들과 인민봉사단위들에 전기계통현대화와 자체전력관리체계를 훌륭히 개발도입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여러 차례의 평가의 말씀도 보내주시고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의 학위학직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인재는 나라의 큰 자원이고 발전의 동력이라고, 인재육성은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적문제이라고 하시며 김덕수선생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거듭거듭 크나큰 사랑과 믿음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과학자들 누구나 심장으로 웨쳤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희들은 영원히 붓대로 우리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조국의 붉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참다운 애국자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

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수많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 배출되였다.

2021년 상반년도에만도 전국의 도, 시, 군들에서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앞장선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의 대렬이 급속히 늘어났다.

주체철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대상공사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용광로직장 직장장으로 임명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체철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30여건의 발명과 창의고안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선철생산량을 조업초기에 비해 3배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직장장 김경철, 탄광기사장을 거쳐 지배인으로 사업하고있는 지난 10여년간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면서 석탄생산을 몇해사이에 1.8배로 끌어올리였으며 탄광의 영예를 떨치는데 크게 이바지한 문천탄광 지배인 박사 리성원, 지난 20여년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1 000여정보나 되는 조국의 산림을 자기의 살붙이처럼 품어안고 온갖 지성을 다 바쳐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킨 룡연군산림경영소 가평리산림감독원 김동수…

조국땅 그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애국자들은 하나와 같이 평범하고도 참된 인간들이다.

겉모습은 비록 소박하지만 보석처럼 아름다운 성실한 그 모

습들에서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뿌리를 볼수 있으며 조국은 무엇으로 강해지는가를 뿌듯이 절감할수 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이는 결코 직위도 명예칭호도 아니다.

하지만 이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참된 애국자들에게 안겨주는 조국의 믿음이고 인민이 찾는 신성한 부름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애국의 열풍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감한 돌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전체 인민은 누구나가 시대의 전형,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투쟁의 날과 날을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평범한 인민을 시대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애국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어가기에 이 나라의 래일은 끝없이 창창하고 밝은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태와 대풍모

사람들 누구나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 것은 인간이 수수천년 지향하여온 념원이다.

한 가정의 행복은 결코 풍부한 물질생활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물질생활수준이 높아도 혈육들간에 서로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이루어질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대집단속에 사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도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기풍이 서있는가 서있지 않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는것이다.

결국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친형제처럼 서로 돕고 이끌고 위해주면서 화목하게 사는 생활이야말로 인류의 념원이 실현된 가장 행복한 생활이라고 할수 있다.

인류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리상사회, 리상생활은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 인민이 바라는 참다운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을 사상의지적으로뿐 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 완성하는것을 중요하게 내세우

시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힘을 넣으시여 이 땅우에 인간완성의 새 력사를 열어놓으시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누구보다 인민을 사랑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내세우신 참으로 훌륭한 구호이다.

비록 길지 않은 구호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무한한 견인력과 생명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을 산악같이 일으켜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진 가장 격동적인 시대를 창조하였다.

그 나날 시대의 전형으로 얼마나 많은 천리마기수들이 태여났던가.

지난날 째지게 가난한 화전민의 딸로 태여나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쓸줄 몰랐던 농촌처녀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천리마시대의 붉은 선동원으로 어엿이 자라난 리현리의 리신자.

나의 소원은 우리 공장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는것이라는 인생관을 간직하고 자기 작업반을 천리마작업반으로 만들어놓은 다음 두번이나 자진하여 가장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옮겨가 그 작업반들도 천리마작업반으로 만들어 3개의 천리마휘장을 가슴에 달았던 평양의 길확실영웅.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들고 교대가

교대를 도우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던 강선의 진응원.

자신부터가 생산혁신자가 되고 작업반을 집단적혁신운동에 불러일으킨 룡성의 주성일작업반장…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은 하나와 같이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온 참된 충신이였을뿐 아니라 진정한 집단주의정신의 체현자,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이였다.

그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는 속에 이 땅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태로, 대풍모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구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를 들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강철로 수령님을 받들던 시기에 나왔는데 정말 좋은 구호이라고, 구호가 나온지 오래되였지만 오늘의 시대적요구에도 맞는다고, 개인주의를 깨버리고 집단주의정신을 심어주며 공산주의사회에로 가자면 이 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회주의 첫 세대들이 창조한 이 빛나는 전통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와 더불어 그 어떤 력사의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넌대와 넌대를 이어 더욱 굳건히 이어져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 누구나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사회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있어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귀중한 전우들을 구원하고 1990년대 첫 영웅으로 값높은 영생의 삶을 빛내인 김광철과 같이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였을뿐 아니라 힘겨울수록 자기를 바쳐 남을 위해주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소행들이 련이어 태여나 만사람을 감동시키였다.

고난의 그 시절 조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피력하였다.

《…

조국인민들에게도 풀어야 할 생활상고충들이 있다. 그러나 고난이 클수록 언제나 따뜻한 정을 안고 살며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서로 도와주면서 이겨낸다.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정다운 이웃들과 동지들이 있기에 외로움을 모르는 조국인민들이다.

이 인정의 세계가 얼마나 귀중한것인지 또 그것이 없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무서운 정신적공허감과 허탈감에서 방황하게 되는지 쓰라린 인생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꽃꽃이 빛내여주신 집단주의에 뿌리를 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사랑속에 더욱 높은 경지에서 발현되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수한 민족, 강위력한 국가의 징표는 그 어떤 령토나 재부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인민이 지닌 사상의 높이와 단결력, 고결한 도덕풍모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모든 사람들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육성하며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묶어세울수 있는 도덕적기초가 있기때문에 사회주의가 위대한것이다.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고 리상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전체 인민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화목한 대가정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그이의 세심한 손길속에 이 땅에서는 동지들과 집단의 기쁨

과 행복이자 자기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고결한 인생관이 사람들모두의 심장에 더욱 억세게 자리잡게 되였으며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 응당한것으로,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 진군길에서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시각에 한몸을 기꺼이 내대여 동지들을 구원한 박태선영웅과 리창선영웅, 폭발물처리대원들이였던 김금수, 한병남영웅들을 잊지 못하고있다.

갑자기 떨어지는 3t이 넘는 큰돌을 자기 한몸으로 막고 혁명동지를 구원한 박태선영웅, 벼랭상모판씨뿌리기에 필요한 흙을 파던중 무너지는 흙벽을 한몸으로 막고 분조원들을 구원한 리창선영웅.

돌발적인 위험요소를 제일먼저 발견한 그들이 만약 한걸음만 뒤로 물러섰으면 살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동지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폭발물처리대원들이였던 김금수, 한병남영웅들도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이 떨군 시한폭탄을 해제하던중 터지는 폭탄을 몸으로 덮어 동지들을 구원하고 시신도 남기지 못한채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그들의 희생적인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박태선동무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이 동무의 영웅적소행을 잊지 말며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의 값높은 삶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도록 희생된 동무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신 친필과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에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려는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화국영웅으로 영생의 언덕에 올라선 그들의 값높은 삶을 통해서 우리 인민들모두는 **김정은**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뜨겁게 새겨안았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인민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기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 우리 집을 빛내여나갔다.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열화와 같은 사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가운데 뜻밖에 들이닥친 큰물로 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개천의 조양탄광지구와 검덕지구로부터 시작하여

조국의 북변 라선땅과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을 포함하는 함북도 북부지역, 황해남도의 대청리며 함남도의 홍원을 비롯한 피해지역들이 온 나라의 성의있는 지원과 노력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되여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진 사실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 우리 집의 참모습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 나라의 수많은 미풍선구자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2019년 1월 19일부 《로동신문》에는 《사회주의 우리 집을 이런 참된 공민들이 떠받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두눈과 두팔을 잃고 한다리를 의족한 특류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고 그를 30여년간이나 돌보아온 안해이며 또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으로서, 원군미풍열성자로서 만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는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회안청년탄광 로동보호물자공급과 부원 김춘화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기사였다.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길을 걸어온 한 녀성에 대한 기사를 읽고 누구나 할것없이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너도나도 김춘화녀성처럼 공화국의 긍지높은 공민으로 살겠다는 맹세로 가슴들을 불태웠다.

김춘화와 같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것을 긍지로 여기며 자기의 피와 살도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응당하고 례사로운것으로 간주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이다.

이 나라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가꾸어가고있으며 그 과정에 우리 사회의 본태, 대풍모를 살려나가는것이 고유하고 우월한 국풍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어제날 천리마시대의 구호라고만 생각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누구나 이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온 사회에 집단주의적 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상처입은 가슴들에 재생의 빛을 안겨준 일군의 소행에 대해 그처럼 기뻐하시며 감사의 정이 어린 친필서한도 보내주시고 평범한 세포비서들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그들이 동지와 집단을 위해 더 충실히 일하리라는 기대를 담아 친히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를 3절까지 한구절한구절 다 쓰시여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속에서 시련은 엄혹해도 고상한 미덕과 미풍은 끊임없이 꽃펴나게 되였다.

전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미덕을 사회주의국풍으로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도의 따뜻한 정으로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정성다해 지원하며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피해지역에 나가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신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창조되는 사회주의적대풍모가 어떤것인가를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는 누구나 이 구호와 더불어 너와 나 모두가 합치면 전체가 되고 그 전체가 뜻과 정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된다는 진리를 되새겨보고 한없이 소중한 이 전체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쳐갈 열망으로 불태우고있다.

수도의 위성도시인 평성시의 요람동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그칠새 없는 한채의 작은 집이 있다. 나이와 성별, 직장과 직위,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시안의 주민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이제는 온 시가 다 아는 집, 평성시만이 아닌 전국각지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식구로 살자고 눈물겨운 편지를 쉬임없이 보내오고있는 이 집에는 과연 무슨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몇해전 뜻밖에 화재가 일어난 학교뒤산에 제일먼저 뛰여올

라가 불에 타드는 숲을 지켜내다가 10대의 너무도 아까운 생을 바친 리정덕학생, 그가 이 소박한 집의 아들이였다. 조국과 인민의 재부를 지켜 서슴없이 목숨을 내댄 소년, 그 애국적소행이 너무도 가슴을 치고 눈물겨운것이여서 그의 영원한 선생님이 되고 학급동무가 되고 형님, 누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여주려고 온 시가, 아니 온 나라가 이렇게 정을 잇고 인연을 맺은 집이 되였다.

어제날 룡양의 영웅소대가 지니였던 투쟁기풍을 그대로 이어 나라의 제일 깊은 곳, 어렵고 험한 막장에서 수십년세월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 일해오고있는 검덕의 고경찬영웅소대, 자신들만이 아니라 뒤떨어진 소대, 힘들어하는 단위, 금방 들어온 새세대 광부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주고 이끌어준 그 하많은 이야기들에서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시대정신을 페부로 절감할수 있다.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 청년들이 위훈창조, 긍정창조, 문명창조의 기수,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가 될데 대한 당중앙의 뜻을 받들고 각지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전구들로 속속히 진출하는 소식이 매일과 같이 전해지고있다.

지난해만도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의 1만 500여명의 청년들이 청춘의 희망과 행복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데서 찾고 각지의 탄광들과 협동농장들로 탄원진출하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의 확립에 대한 전 사회적요구가 높아가는 시기에 다름아닌 우리의 새세대 청년들이 어느때보다 그에 열렬히 호응해 나서고있는 사실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으며 새 승리를 향한 투쟁과 전진에 보다 큰 열정과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이 나라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가꾸어가고있으며 그 과정에 우리 사회의 본태, 대풍모를 살려나가는것이 고유하고 우월한 국풍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사상최대의 제재와 압박, 혹독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있다.

하지만 천만인민모두가 추호의 비관과 좌절을 모르고 고상한 집단적도덕륜리를 견지하며 사회주의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더욱 빛내여나가고있으니 이처럼 강의하고 아름다운 인민이 또 어디에 있으며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앞당겨오는 참다운 인민의 리상사회는 또 얼마나 눈부신것인가.

덕과 정으로 화목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인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덕과 정을 중히 여겼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정의 세계를 창조하며 그것을 민족의 전통과 풍습으로 대대로 이어왔고 또한 자랑으로 여겨왔다.

부모를 잘 모시고 이웃들간에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전통과 풍습은 《효녀지은》과 같은 눈물겨운 설화 등이 생겨나게 하였으며 손님을 환대하고 편의를 잘 돌봐주는 조선사람의 풍속과 인심은 엽전 한잎없이 괴나리보짐만을 메고 온 나라를 편답하는 무전려행을 낳게 하였고 동방례의지국이라는 별칭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었다.

《세상에 이렇게도 성격상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특성을 가진 인민을 발견하기는 힘들것이다.》라고 한 19세기 로씨야 지리학자의 고백을 놓고서도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근면하고 성실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례의도덕이 밝은것으로 널리 알려져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렇듯 덕과 정을 귀중히 여겨온 우리 인민의 귀중한 전통과 풍모가 절세위인들의 손길과 더불어 새로운 정신도덕적

기초우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되여 가장 숭고한 경지에 올라섰으며 세기를 이어오며 나날이 더욱 승화되여 뜨겁게 발현되고있다.

덕과 정으로 화목한 대가정.

바로 이 부름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에 대한 대답이 있으며 고난과 시련을 눌러딛고 승리를 확신하며 문명한 사회주의락원을 창조해가는 이 세상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민의 모습이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덕과 정, 그것은 사회주의의 영원한 이름이며 누구도 지어낼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이다.

국보적명곡인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를 때면 우리 인민 누구나가 위대한 어버이들의 품속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집, 혈연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로 가슴부풀어오르고 눈굽이 쩌릿이 젖어드는것을 금할수 없어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사랑과 정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세상이 부럽도록 덕으로 살고 정으로 행복한 삶을 가꾸어가고있는 우리 인민인것이다.

온 사회에 덕과 정이 차넘치며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인민의 락원,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고 확고한 결심이다.

지나온 10년세월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손길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고상한 도덕품성과 인간관계가 온 사회에 지배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나날이였다.

전체 인민이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나라, 온 사회에 동지적단결과 협조,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참다운 사회주의적 인간관계가 꽃펴나는 나라가 진정한 문명국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장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특히 여기서 중시하신것이 바로 온 사회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을 도모하는 도덕기풍을 보다

높은 경지에 철저히 확립해나가도록 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숭고한 귀감으로 전체 인민에게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존대하고 위해주어야 하는가를 가슴깊이 새겨주시였다.

지난 2012년부터 전승절과 함께 성대히 진행되고있는 전국로병대회와 더불어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는 전쟁로병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화폭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라고 하시면서 전승절과 함께 전국로병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자신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시며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도 하시고 허리숙여 깊이 인사를 보내시며 로병들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꼭꼭 찍어주시고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의 이렇듯 숭고한 의도와 다심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국로병대회가 열릴 때면 그 준비로부터 결속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 나라가 관심하고 모두가 떨쳐나서 성심성의로 도와나서는것이 확고한 기풍으로 확립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룡악산기슭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명당자리들에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쟁로병들을 위한 보양소가 일떠서고 모든 전쟁로병들이 정기적으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면서 보양을 받고있을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성심성의껏 돌봐주는 아름다운 미풍들이 끊임없이 발휘되고있다.

전승절을 비롯하여 국가적인 명절날들이면 전국의 그 어디에서나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찾아가 성의껏 마련한 갖가지 보약들이며 필수품들을 안겨주고 노래속에, 웃음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만날수 있다.

전쟁로병을 위해 바쳐지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에날마다 꽃펴나고 소개되고있는데 얼마전에만도 안주시에서 살고있는 한 전쟁로병이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 광명을 되찾은 소식이 알려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전쟁로병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내세워주는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아흔살이 넘도록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아오던 그는 로환으로 두눈을 보지 못하게 되였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생기는 병인것으로 하여 본인은 물론 아들, 며느리까지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고있었지만 어머니당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해 평양의 유능한 의료진이 안주에까지 내려가 직접 치료전투를 벌리게 되였다.

앉은자리에서 평양의 유능한 의료일군들로부터 눈치료를 받게 된 로병아바이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으며 의료일군들의 정성어린 치료가 진행되는 속에 눈수술도 받고 마침내 광명을 되찾을수 있게 되였다.

진실로 존경하고 극진히 위해주는 살뜰하고 정깊은 사랑을 받아안으며 행복속에 여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어찌 전쟁로병들뿐이겠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쓸모없는 페물로 치부되여 온갖 학대와 랭대를 받으며 살아갈 로인들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세심한 손길에 이끌리여 혁명선배로 떠받들리우고 웃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인생의 황혼기를 청춘시절 못지 않게 즐겁게 보내고있다.

혁명선배들을 끝없이 존대하시고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양로원들이 훌륭하게 꾸

려지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외로움이란 말조차 모르채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흥겨운 노래가락속에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스스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이 되여 자기 집에 모시는 미풍의 주인공들이 늘어만 가고 사람들 누구나가 자기 부모님을 비롯하여 웃사람들을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성심성의로 모시는 고상하고 문명한 례의도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있다.

오늘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살인과 강탈 지어 제가 낳은 자식을 때려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죽이며 목매달아 죽이는 혈육간의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여 건전한 리성을 가진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내버려지고 버림당한 사람, 그늘이 진 사람이 단 한명도 없으며 모두가 집단과 동지, 이웃들의 보살핌속에서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지난 기간 나라의 곳곳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현대적으로 신설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누려가고있는 원아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보육 및 교육조건과 생활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진 사랑의 집에서 원아들 누구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담겨진 물고기와 첫물과일을 비롯한 갖가지 영양식료품들과 철따라 입을수 있는 의복류, 멋진 유희기재들을 비롯하여 이 세상 제일 좋은것들을 일년 내내 보장받으며 생활하고있다.

특히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뜨겁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인민이 호응해나서 원아들의 생활을 정성을 다해 돌봐주고있다.

이전에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신 그날로부터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끝없이 늘어만 가고있다. 원아들을 친부모, 학부형된 심정에서 잘 돌봐주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대가정의 한 성원으로서의 응당한 본분이 있다는 자각을 안고 수많은 단위의 일군들로부터 평범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혈육의 정을 안고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들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성

의껏 마련한 많은 량의 물자들을 원아들에게 한가득 안겨주기 위해 고마운 사람들이 쉬임없이 찾아오고있다.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가 되였을 부모없는 아이들이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속에 사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르고 세상만복을 다 누리는 가슴벅찬 현실앞에서 우리 인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와 더불어 더욱 밝아질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온 사회를 우리 인민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였기에 이 땅에서는 매일 매시각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끝없이 꽃펴나고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스러운 국풍의 하나로 확립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미풍을 적극 발휘해나가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고 미풍선구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그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해주시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널리 따라배우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였다.

2015년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도덕생활기풍을 더욱 철

저히 확립함으로써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기풍이 보다 높은 경지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게 되였다.

애어린 꽃나이처녀시절에 여러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 키운 강선땅의 《처녀어머니》도 바로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세워주신 미풍선구자의 한사람이다.

그의 미덕에 공감하여 그처럼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된 처녀어머니, 총각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태여났는지 모른다.

그 하많은 이야기중에 한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2021년 9월에 신문과 TV를 통해 수년세월 정을 다해 남남인 한 원아를 키웠을뿐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그의 어머니가 된 중구역 련화2동의 최선희에 대한 소행이 소개되여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였다.

그후 끌끌한 제대군인대학생이 최선희와 일생의 반려자로, 원아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였으며 그들의 결혼식이 온 구역의 관심과 축복속에 진행되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져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였다.

《원아의 어머니가 된 선희동무네 집 경사이자 우리 동의 경사입니다.》

《온 직장이 선희동무네 새 가정을 위해 떨쳐나섰습니다.》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주었고 어느 한 단위의 일군은 결혼식상을 자기들이 맡아 성의껏 차려주며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었다.

아름다운 소행에 뜨겁게, 열렬히 공감하며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이 있어 대지우에 온갖 꽃이 만발하듯이 절세위인의 은혜로운 사랑이 있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그처럼 그윽한 인간적향기가 공기마냥 넘쳐흐르는 내 조국강산이다.

온 나라에 덕과 정이 차넘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와 집단을 위해 고상한 풍모를 높이 발휘한 참인간들의 모습속에 사랑의 힘으로 대가정의 화목을 도모해나가는 이 나라 인민의 고상한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다.

몇해전 《로동신문》을 통해 널리 소개된 불행을 당한 대관군의 한 처녀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남모르는 수고와 정성을 아낌없이 기울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회주의대가정에서 단 한명의 아이라도 부모잃은 설음을 모르게 하기 위해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운 구장땅의 평범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 사경에 처한 군인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쳐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원산시의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뜻밖에 한쪽손을 잃은 재봉공처녀와 일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한 제대군인청년과 그들의 결혼식을 온 시가 떨쳐나서 성대하게 차려준 덕천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실로 만사람을 감동케 하는 이런 미덕과 미풍의 향기가 어디 가나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끊임없이 넘쳐흐르는것이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이 땅에 펼쳐진 덕과 정의 세계는 결코 평범한 날에는 그 진가를 다 알수 없는 깊고도 강렬한것이다.

어려울수록, 시련과 곤난이 클수록 고락을 함께 하며 주고받는 정과 사랑이 행복한 날, 례사로운 날보다 백배천배로 귀중한것임을 류례없이 엄혹했던 2020년의 날과 달들이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지금도 격정속에 어려오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영상.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은파군 대청리의 그 험한 진창길을 제일먼저 헤쳐가시고 태풍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언제 산사태가 무너져내릴지 모르고 물먹은 철길로반들이 어느 시각에 주저앉을지 모르는 그처럼 위험천만한 길도 한달음에 달려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새겨가신 그 불멸할 자욱마다에 꽃펴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전례없는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시고도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오히

려 인사를 하시고 신세를 지고 간다고 뜨겁게 뇌이시던 그날의 이야기, 집을 잃은 주민들은 군당위원회청사에서 편히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는 경이적인 화폭…

자연의 대재앙이 련이어 덮쳐들던 그 나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사수의 대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온 나라가 어깨를 겯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사회주의의 대풍모를 더욱 높이 발휘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에 접하고 불과 몇시간만에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에 달려나갈것을 열렬히 탄원해나선 수많은 수도당원들이며 피해지역들에서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내며 위훈의 자욱을 뜨겁게 새겨간 미더운 인민군장병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정으로 마음을 끓인 그들이였기에 복구전투의 나날에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까지 바쳐가는 수많은 미풍들을 발휘할수 있었다.

하기에 피해지역 인민모두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고, 수도당원들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싶다고 마음속진정을 목메여 터친것이다.

그렇다.

이 땅에 몰아치는 비바람, 눈보라가 사나울수록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지키려 보다 억세여지고 더욱 살틀해지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 그 품속에서 서로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며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와 발전의 길에 들어서 새로운 비약과 전진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대진군의 발걸음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엄청난 도전과 난관은 갈수록 가중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상어려움과 고통을 가시는 일도 힘겨워지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절대로 락심하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그럴수록 사랑과 정의 힘으로 만난을 이겨낼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세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록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인 기풍이 더 높이 발휘되여야 하며 덕과 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완성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고 리상이라고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더욱 아름다와지고 열렬해지는 사회주의 덕과 정, 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의 단결은 그렇듯 공고하게 다져지고 조선의 힘은 그렇듯 줄기차고 억센것이다.

우리 인민은 인덕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궁지와 자랑을 안고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대가정을 목숨처럼 지키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더 높이 울릴 새로운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위대한 인민은 말한다

필　자	김정남
장　정	채대성
교　정	조경희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1(2022)년 4월 4일
발　행	주체111(2022)년 4월 7일

ㄱ－1530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53－1

ISBN 978-9946-31-153-1